


경주 낭산 일원 내 추정 고분지 정비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가검토회의 자료



2017. 02.



재단
법인 **성림문화재연구원**
SUNGLIM CULTURAL PROPERTY RESEARCH CENTER



경주 낭산 일원 내 추정 고분지 정비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가검토회의 자료

2017. 02.



재단
법인 **성림문화재연구원**
SUNGLIM CULTURAL PROPERTY RESEARCH CENTER

경주 낭산 일원 내 추정 고분지 정비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가검토회의 자료

I. 조사개요

1. 조사개요

- 유 적 명 : 경주 낭산 일원 내 추정 고분지 정비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 조사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96번지
- 조사기간 : 2016년 9월 26일~2017년 2월 15일
(실조사일수 100일중 96일)
- 조사면적 : 4,628㎡
- 조사의뢰기관 : 경주시 문화재과
- 조사기관 : (재)성림문화재연구원
- 조사단 구성
 - 조 사 단 장 : 박 광 열(성림문화재연구원 원장)
 - 책임 조사원 : 김 대 덕(성림문화재연구원 연구부장)
 - 조 사 원 : 김 희 철(성림문화재연구원 조사부장 직무대리)
류 성 재(성림문화재연구원 선임팀장)
 - 준 조 사 원 : 박 기 혁(성림문화재연구원 선임연구원)
최 익 진(성림문화재연구원 선임연구원)
한 승 현(성림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원)
 - 보 조 원 : 강 정 윤(성림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원)

2. 조사 경위 및 목적

조사대상지인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96번지는 경주 낭산 일원(사적 제163호) 문화재 구역 내 북동쪽 끝자락 평지에 위치하며, (전)황복사지가 있는 과수원과 논 경계 독에 십이지신상 일부가 확인되어 왕릉지 혹은 목탑지로 추정되고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경주시는 2015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의 「경주 낭산 일원(사적 제163호)」 정비사업¹⁾의 일환으로 낭산 주변 폐왕릉지로 추정되는 곳에 석재 유구가 노출되어 있으며, 농작물 경작으로 인해 유구 훼손이 우려되고 있어 발(시)굴조사를 통해 향후 유적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한 고고학적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우리 연구원에 시굴조사를 의뢰해 옴에 따라 2016년 6월 2일~2016년 6월 10일까지 실조사일수 6일간 발(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탕석과 면석, 지대석과 갑석 등 추가 왕릉 부재가 확인되었고, 일부 부재는 후대 건물지의 담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조사한 시굴 트렌치 내부에서 담장과 와무지, 적심 등 건물지와 관련된 시설이 확인되었다. 이들 확인된 유구에 대해 2016년 6월 21일 전문가 검토회의(김권구(계명대학교 교수), 강현숙(동국대학교 교수))를 개최였으며, 그 결과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경주시에서 본 연구원에 정밀발굴조사를 의뢰해 옴에 따라 문화재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득한 후, 2016년 9월 26일에 착수하여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 1월 10일에는 현재까지 조사된 건물지 및 추정왕릉지에 대한 조사 및 학술적 검토를 위해 학술자문회의(박방룡(前부산박물관장), 박홍국(위덕대학교 교수), 양윤식(창의건축연구소 소장))를 진행하였다.

II. 조사지역 현황

1. 자연·지리적 환경²⁾(도면 1~2)

경주시는 경상북도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동쪽으로 포항시, 서쪽으로 영천시와 청도군, 남쪽으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접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동해에 면한다.

지형 및 지질은 태백산맥의 지맥인 동대산맥(東大山脈)과 주사산맥(朱砂山脈)이 남북으로 주행하여 동서의 경계를 이루는 경상분지체에 속한다. 또한 형산강의 구조곡과 영천~경주 간 구조곡이 교차하는 지점에 형성된 화강암 지층의 침식분지에 위치한 경주시는 구릉성 산지로 둘러싸인 자연요새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중심부를 관통하는 북천, 반월성을 감싸 도는 남천과 합류하여 형산강 본류를 형성하면서 북류하여 포항 영일만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 형산강의 중상류에 형성된 충적평야는 그 면적이 42.9km²로, 토질이 사질토양으로 매우

1)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936(2016.04.05.)호, 「경주 낭산 일원 정비공사 지침변경 승인」.

2) 건설부국립지리원, 1982, 『한국지명요람』.

비옥하고 관개수로가 잘 발달되어 있다. 기후는 기온차가 비교적 심한 내륙성기후로 풍향은 계절풍 영향권에 속해 있고 기온은 연평균 기온은 13.3℃로서 전국 평균기온보다 높은 편이다. 연 강수량은 1000mm이하로 이는 여름철의 저기압대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백산맥과 만나 습기를 손실하였고 겨울철에는 동해를 거쳐 부는 습윤한 바람은 태백산맥을 넘어오면서 건조한 바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전국 연평균 강수량보다 적다.³⁾

조사지역 북쪽으로 북천이 흐르고 있으며, 북천의 관개수로가 정비되기 전까지 홍수에 노출되었던 지역으로 북천 남쪽 조사지역 일대를 보문들로 불리운다. 행정구역역상 구황동에 해당하며, 경주 낭산일원(사적 제163호)의 북동쪽 끝자락 평지(경작지)에 위치한다. 낭산은 경주시 보문동과 구황동, 배반동 일대에 걸쳐 있으며, 남·북봉의 두 봉우리가 남북으로 길게 잇댄 나지막한 구릉 지형을 띄고 있다.

2. 역사·고고학적 환경(도면 1~6)

조사지역이 위치한 낭산(狼山)은 남봉(해발 약 100m) 주변에 경주 선덕여왕릉(사적 제182호)을 비롯하여 경주 사천왕사지(사적 제8호), 경주 망덕사지(사적 제7호), 경주 망덕사지 당간지주(보물 제69호)가 유존하며, 북봉(해발 약 113m) 주변으로는 동쪽에 경주(전)황복사지 삼층석탑(국보 제37호), 경주 낭산 마애보살삼존좌상(보물 제665호), 문무왕의 화장터로 알려진 능지탑, 신라의 대학자 최치원의 고택지인 독서당도 서록에 자리 잡고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실성왕 12년(413) 8월에 구름이 낭산에 일어났는데, 구름이 누각 같이 보이고 사방에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하늘의 신령이 내려와서 노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응당 복지(福地)이다’ 라고 생각한 왕은 낭산을 신령스러운 곳으로 여겨 나무 한 점 베지 못하게 하였다.

황복사에 관한 기록으로 『삼국유사』에 의하면 654년(진덕여왕 8)에 의상(義湘)이 황복사에서 29세에 출가(出家)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나, 출가는 그 이전에 하였고 정식으로 계를 받고 도첩을 받은 때로 판단된다. 동서 권4 의상전교조에 의상이 요탑(繞塔)행위를 하였다는 기록은 탑을 돌 때 도중은 층계를 밟고 하였으나 의상은 허공을 밟고 올라가 층계를 밟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짐작컨대 목탑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였다. 또한 표훈은 경덕왕대(742-764년) 대덕으로 황복사에 주석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의상과 동시대 인물로 기록되었다는 점은 문제로 볼 수 있으며 후대에 윤색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전황복사지 삼층석탑은 신라 석탑의 전형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1942년 이 탑을 해체 수리할 때, 제2층 옥개석에서 금제여래입상과 금제여래좌상이 발견되어 국보 제80호와 국보

3) 윤순옥·황상일, 2001, 「한국 남동부 경주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선사 및 고대의 인간생활」 『국가형성기 경주와 주변지역』, 학술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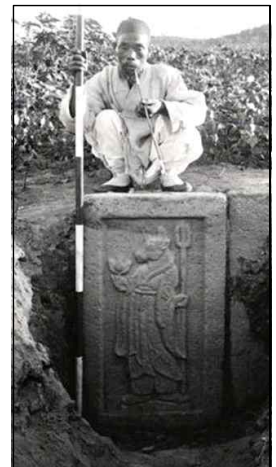
제79호로 지정되어 있다. 출토된 金銅舍利函 뚜껑의 記銘에 의하면, 「신문대왕이 천수 3년(692) 임진년 7월 2일에 흥(薨)하시어 신목태후와 효조(소)대왕은 종묘의 신성한 영령을 위해 삼층석탑을 세웠으며, 성력 3년(700) 경자년 6월 1일에 신목태후가 세상을 났으며 대족 2년(702) 임인년 7월 27일에 효조대왕도 승하하시고 신룡 2년 병오(706, 성덕왕 5년) 5월 30일에 성덕왕이 불사리 4과, 순금제 미타상 1구와 무구정광대다라니경 1권을 석탑 2층에 안치한다」라는 기록으로 볼 때, 황복사는 탑이 건립되기 이전 654년(진덕여왕 8)에 이미 건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3층 석탑은 효소왕 원년(692)부터 성덕왕 5년(706) 사이에 신문왕 등 전대 왕족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건립하였는 것으로 생각된다.



삽도 1. 황복사지 동편 금당지 십이지신상 (계간 한국의고고학 2010. Vol. 16)

『삼국유사』에 경명왕(923 흥)을 황복사에서 화장하여 뼈는 성등잉산 서쪽에 산골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삼국사기』에는 왕이 죽어 시호를 경명이라 하고 황복사 북쪽에 장사지냈다는 기사가 있어 서로 상충된다.

일제 강점기인 1928~30년대 노세 우시조(能勢丑三)에 의해 전황복사지 삼층석탑 동쪽 과수원과 논 경작지 경계에 위치한 十二支神像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후 별다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1968년 신라삼산오악조사단에 의해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금당지 기단에 붙여 8기의 십이지신상이 확인되었으며, 북쪽부터 돼지(亥), 쥐(子), 소(丑)像 외에도 상부가 파손된 像 1기, 동쪽에 토끼(卯), 뱀(巳), 말(午), 양(未)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한다.⁴⁾ 이 후 1982년에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6기의 십이지신상(亥, 子, 丑, 巳, 午, 未)을 동서 8m, 남북 12.7m 범위 내에서 재확인한 바 있다.⁵⁾



삽도 2. 能勢丑三 십이지신상(丑)



< 삽도 3 > 1928~1930년 노세 우시조(能勢丑三) 조사 전경(출처: 경주학연구원)

4) 考古美術同人會, 1968, 「新羅三山調査(第一次)」 『考古美術』 第九卷 第五號(通卷94號), pp.28~29.
 考古美術同人會, 1968, 「慶州 傳皇福寺址의 諸問題」 『考古美術』 第九卷 第八號(通卷97號), pp.1~6.
 5)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1985, 『新羅狼山遺蹟調査』

이외에도 조사지역 주변에는 머리가 잘린 귀부 2기와 근처에서 출토된 동국대박물관 소장 비편, 당간지주 일부와 석정들이 확인되며, 전황복사지 금당지 북편 50m 하단에서는 안상(眼象)이 새겨진 반파된 상석(?)이 위치한다.

전황복사지 동편 금당지에서 확인된 8기(하반신 파손 1상)의 평복 십이지신상 외에 능지탑의 쥐(子)상은 황복사지 금당지 출토 십이지신상과 조각수법과 복장이 닮아 있어 추정왕릉지에서 옮겨간 호랑이(寅)상으로 추정⁶⁾되기도 하며, 상반신의 개(戌)상은 국립경주박물관(경주 2649번)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외 용(辰), 원숭이(申), 닭(酉)상 3구는 미확인상태이다.

조사지역은 전황복사지 삼층석탑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135m 지점에 위치한 논 경작지 일대로 시굴조사 이전부터 추정왕릉 석물 등이 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그동안 조사지역 추정왕릉지에 대한 대략적인 규모⁷⁾와 십이지신상을 통해 연구가 간간히 이루어져 왔으며, 각 연구자들에 의해 황복사의 초기목탑지 혹은 신문왕릉⁸⁾, 성덕왕비인 소덕왕후 또는 효성왕비인 해명부인 김씨 능⁹⁾, 민애왕릉¹⁰⁾ 등으로 비정되고 있다.

Ⅲ. 조사내용

1. 조사방법

현장 조사는 기존 시굴조사에서 왕경유적의 연장을 감안하여 황룡사지 금당지 남쪽의 기준점을 0.0 좌표로 설정한 후 광파측정기 및 DGPS, 수치지형도(GRS80 KOREA129 G60)를 이용하여 조사지역으로 연장, 트렌치를 구획하였다.¹¹⁾ 조사는 기존 시굴 트렌치 설정에 있어 1m 독을 설정한 후 트렌치를 설정하였기에 기존 독을 두고 모두 6개 구역으로 나누었으며, 이 중 2구역은 왕릉 석재가 분포하고 있어 50cm 십자독을 설정하여 4개 구역으로 다시 나눈 뒤 아래와 같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후 독에 대한 토층 기록을 완료한 뒤 독을 제거하였으며, 독으로 확인이 어려웠던 유구에 대한 노출작업을 진행하였다.

○ 주변정리작업 : 현장조사 착수시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지역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동시에 조사대상지역의 조사 전 상태를 촬영 및 기록하고 현장정리 작업을 실시한다.

6) 능지탑의 쥐(子)상은 강우방, 이근직 등에 의해 寅(호랑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7) 강우방·이근직은 탕석의 현 위치를 고려하여 왕릉의 대략적인 둘레를 약 51m(직경 16m)로 추정하였다.

8) 강우방, 1973, 「신라십이지상의 분석과 해석」, 『불교미술』 1집, 동국대박물관.

_____, 1990, 「통일신라 십이지신상의 양식적 고찰」, 『원융과 조화』(한국고대조각사의 원리), 열화당.

윤경렬, 1988, 전게서.

강봉원, 2015, 전게서.

9) 이근직, 2012, 『신라왕릉연구』, 학연문화사, p.290.

10) 김용성·강재현, 2012, 「신라 왕릉의 새로운 비정」, 『야외 고고학』 제 15호, 한국매장문화재협회.

11) 조사구역 중심부는 황룡사지 0.0 기준점으로부터 S540E975(단위 m)에 해당한다.

○ 퇴적층 제거 및 유구확인 : 전체적인 층위양상을 파악하고 교란토 및 퇴적토를 제거하고 유구확인작업을 실시한다.


○ 사진촬영은 전체 전경 및 각 유구에 대해 조사 단계별(조사전, 조사진행중, 세부, 조사완료 등)로 칼라(디지털)사진을 촬영한다. 중요한 유구와 유물의 경우는 정밀촬영을 실시하며, 적절한 시점에 공중촬영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비디오촬영을 실시한다.

○ 조사기록의 내용은 조사전 현황, 조사진행 과정, 유구개별설명, 유물에 대한 기록, 전체 유구 조합상에 대한 기록 등이고 이를 유구별 야장, 조사일지, 종합야장 등에 기록한다. 아울러 유물의 출토상황에 대한 기록도 철저히 한다. 특히 유구가 복잡하게 중복되어 있을 경우 상층의 유구부터 순차적으로 조사하면서 기록한다. 그리고 전체 유구분포도를 작성하여 유적의 배치상을 기록하고 도면화한다.

○ 출토유물은 고고학적 방법으로 정리한 후, 국가귀속시까지 도난,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며, 부식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과학적 보존처리를 실시한다.

2. 층위

조사구역 내의 토층은 크게 4개의 층위로 구분된다. I 층은 회청색 표토의 현경작층으로 <표 1> 조사지역 표준 토층

<p>I 층: 회황갈색(Hue 10YR 4/2) 표토층 (현경작층)</p>	
<p>II 층: 암회갈색사질점토(Hue 7.5YR 4/2) (전이층 및 구경작층)</p>	
<p>III 층: 암갈색사질점토(Hue 7.5YR 3/4) (문화층 및 유물포함층)</p>	

심경에 의한 논 경작으로 인해 표토층은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 II 층은 암회갈색사질점토층이다. III 층은 암갈색사질점토의 문화층 및 유물포함층이며, IV 층은 황갈색점질토(생토층)이다. 담장 및 건물지 등은 III 층 암갈색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다.

3. 조사내용 (도면 7, 사진 2~52)

조사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추정왕릉 석재 및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담장, 배수로, 도로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유물은 막새, 기와, 전돌, 등잔 등 약 300여점이 출토되었다.

1) 추정 왕릉지 (도면 7, 사진 2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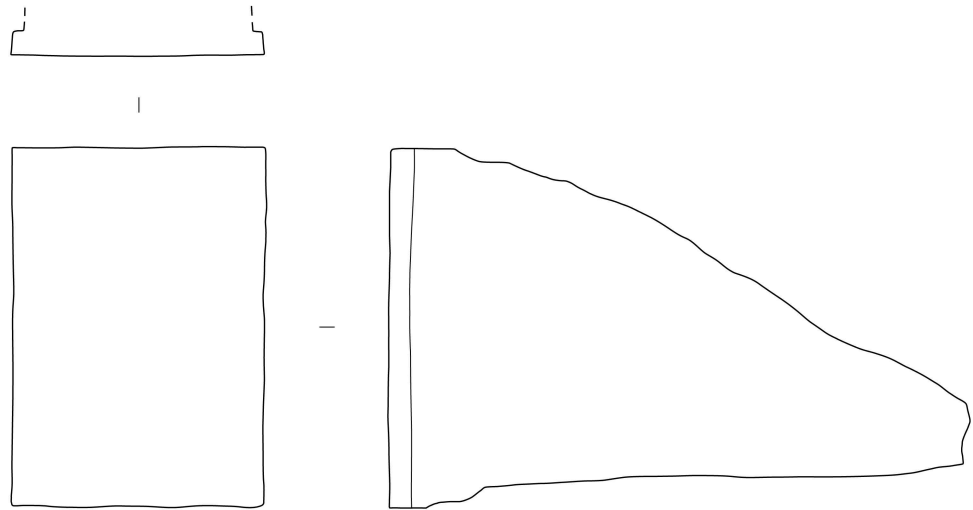
추정 왕릉지 석재 부재는 조사지역 남동쪽에 넓게 흩어진 형태로 확인되었다. 왕릉 부재는 이미 지표상에 그 부재가 노출되어 있었고 시굴조사에서도 다수의 새로운 석물이 확인되었다. 본 석물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곳을 왕릉지로 추정하고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왕릉과 관련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고 면석과 갑석, 미완성 석재 등 다수의 석재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들 석재는 추정 왕릉지 주변으로 후대에 건축한 건물지와 담장 등이 조성되면서 담장에 재사용된 형태로 확인되었다. 확인된 석재는 탕석 18점, 면석 4점, 지대석 5점, 갑석 4점, 기타 미완성석재 16점으로 이 중 탕석 일부는 후대 탕석 가공면을 잘라간 췌기흔이 확인된다.

왕릉 석재의 위치를 살펴보면 동-서 담장인 1호 건물지가 동에서 서로 길게 이어지고 있으며, 담장 배수로 일부를 파괴하고 1호 건물지가 조성된다. 1호 건물지 서쪽에 연접하여 2호 담장이 1호 담장에 연결되어 남-북으로 이어져 4호 담장 앞에서 단절된다. 1호 건물지 북쪽에 연접하여 3호 담장이 동-서로 연결되며, 3호 담장은 약 30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조성되었다. 건물지 1호와 3호 담장은 1호 건물지 북쪽 적심과 기단석렬을 3호 담장 남쪽렬에 붙여 조성한 것과 삼각형 전돌을 이용한 기단 석렬이 ‘L’ 자로 꺾여 담장 렬에 맞춰 보도를 조성한 점으로 보아 동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 때 왕릉 부재가 있는 곳은 건물지 등이 조성되어 있어 왕릉이 입지하기에는 공간적으로 협소하다. 이로 볼 때 조사구역 북동쪽인 빈 공간 일대가 왕릉을 조성하기 위한 공간이 아닌가 한다. 이는 4호 담장 앞 남쪽 석렬을 기준으로 북쪽에 별도 공간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4호 담장이 동-서로 이어지다 서쪽에서 꺾여 남-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이고 있고, 4호 담장 남쪽 석렬이 후대 경작으로 의해 일부 유실되었으나 동쪽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 석렬을 기준으로 북쪽은 황갈색 기반층이, 석재가 있는 남쪽은 유물 및 유구 층인 암갈색사질점토로 구분이 이루어진다. 또한 4호 남-북 담장에 붙여 회랑으로 추정되는 초석이 확인되며, 회랑 동쪽은 배수로와 5호 담장에 붙어서 조성되어 있다. 담장 앞쪽으로는 2호 건물지와 3호 건물지가 위치한다.

왕릉의 조성은 원석을 이곳으로 가지고 와서 가공하여 사용하였는데, 가공 과정에서 나온 박편 등은 조사지역 서편에 남-북으로 놓인 도로면에 깔아 도로 부재로 사용하였다.

현재 이들 석물이 집중적으로 놓여져 있는 곳은 과거 경작으로 인해 원 위치에서 이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미완성 석재가 다수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왕릉 조성과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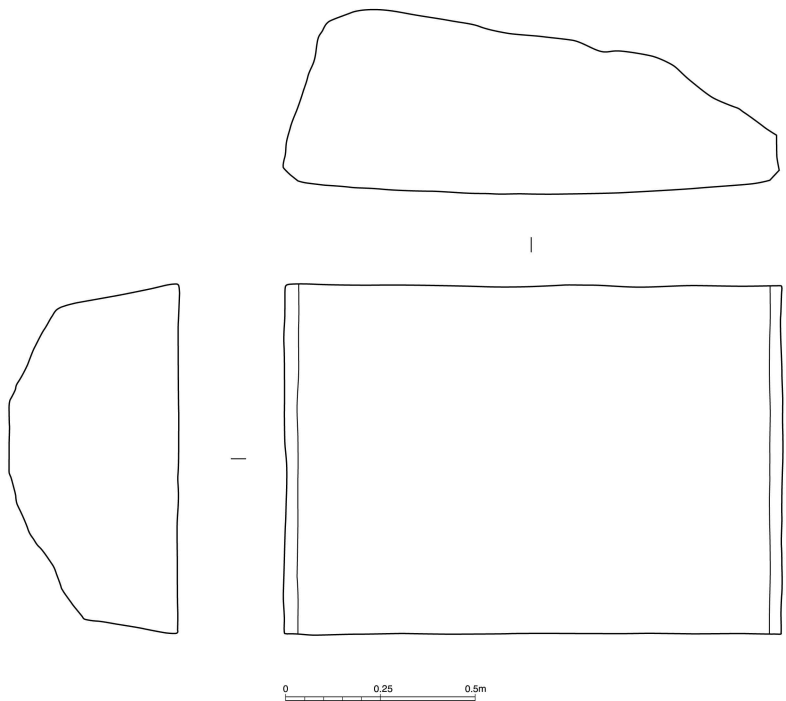
어떤 이유로 인
해 중단되었으
며, 중단으로
인해 방치되었
던 석재들이 이
후 건물지 조성
과정에서 재사
용되었던 것으
로 보인다.



(1) 탕석

탕석은 면석과 달리 뒤쪽이 뾰족한 형태로 돌출되게 제작되어 못과 같이 면석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지역에서는 모두 18매가 확인되었다.

가공면이 결실된 탕석을 제외한 탕석의 높이는 94~97cm이다. 또 탕석은 대부분 매몰되어 정확한 너비를 알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으나 탕석 2·12·15를 기준으로 할 때 탕석의 너비는 62~68cm 범위 내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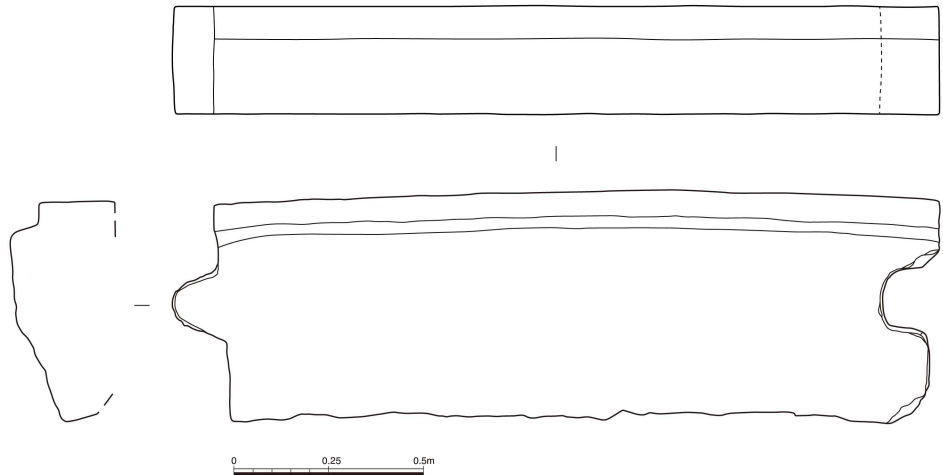
(2) 면석

면석은 4매가 확인되었다. 면석 2매는 2호 담장의 부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1매는 조사 2-4구역 탕석 상부에 뒤집어진 상태이다. 1매는 조사지역 북쪽 외곽 논둑에서 확인된다.

면석은 탕석과 달리 정면되지 않은 뒤쪽이 탕석에 비해 얇게 제작되었다. 규모는 높이 95cm, 너비 122~128cm이다. 특징적인 것은 조사구역 내에서 확인되는 탕석 수에 비해 면석의 수가 확연히 적다. 이는 탕석에 비해 배면이 얇게 제작되어 중량 및 부피 측면에서 이동

삽도 4. 면석 3 실측도(1/20)

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정면된 면이 넓어 각종 부재로의 활용도가 높아 후대에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삽도 5. 갑석 실측도(1/20)

(3) 갑석

갑석은 조사지역 중심부 중앙에서 3매가 확인되었다. 규

모는 길이 203cm, 너비 60cm, 두께 27cm이다. 갑석의 상면 외측 곡률로 추정되는 왕릉의 직경은 약 22m이다.

갑석은 서로 맞물려 결구되도록 서쪽 끝이 돌출되었으며, 반대로 동쪽 끝은 홈이 저 암수 형태로 제작되어 결구 시 갑석 1매의 길이는 191cm이다. 갑석의 상면에는 안쪽으로 6cm 가량 들어 높이 8cm의 곡률을 둔 단을 만들었다. 확인된 갑석은 암수 형태로 제작된 것도 있는 반면 2면 모두 홈이진 형태도 확인되고 있어 위치별로 갑석의 형태가 달리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2> 조사지역 내 석재 제원표

번호	규모(cm)		번호	규모(cm)	
	높이	너비		높이	너비
탱석 1	97	69	갑석 1	길이 203	높이 27
탱석 2	95	66	갑석 2	길이 190	높이 30
탱석 3	95	(63)	갑석 3	길이 192	높이 30
탱석 4	95	65	갑석 4	길이 210	높이 33
탱석 5	(85)	(65)	지대석 1	길이 192	높이 24
탱석 6	(85)	(63)	지대석 2	길이 190	높이 (19)
탱석 7	96	69	지대석 3	잔존길이 171	잔존높이 24
탱석 8	95	68	지대석 4	길이 186	높이 32
탱석 9	95	69	지대석 5	185	54
탱석 10	94	65	미완성석재 1	길이 191	높이 23
탱석 11	94	66	미완성석재 2	길이 191	높이 24
탱석 12	97	62	미완성석재 3	길이 191	높이 23

번호	규모(cm)	번호	규모(cm)
	높이×너비×두께		높이×너비×두께
탱석 13	95×68×154	미완성석재 4	184×46×28
탱석 14	(80)×(62)×(111)	미완성석재 5	길이 168×높이 22×너비 42
탱석 15	96×68×(53)	미완성석재 6	길이 169×높이 33×너비 47
탱석 16	94×(48)×(113)	미완성석재 7	길이 154×높이 34×너비 47
탱석 17	(63)×72×(128)	미완성석재 8	길이 205×높이 (20)×너비 61
탱석 18	94×(62)×129	미완성석재 9	길이 234×높이 31×너비 54
면석 1	94×128×50	미완성석재10	길이 126×높이 28×너비 56
면석 2	96.5×122×(18)	미완성석재 11	길이 179×높이 32×너비 61
면석 3	95.5×124×(26)	미완성석재 12	길이 201×높이 43×너비 42
면석 4	96×123×18	미완성석재 13	길이 168×높이 33×너비 58
원(릉)의 직경 : 약 22.7m 원(릉)의 둘레 : 약 69m 탱석 너비 : 0.66m/매 × 36매 = 23.76m 면석 너비 : 1.25m/매 × 36매 = 45m	미완성석재 14	길이 134×높이 33×너비 65	
	미완성석재 15	길이 172×높이 31×너비 58	
	미완성석재 16	길이 165×높이 31×너비 58	

(4) 추정 왕릉지 검토

첫째, 추정 왕릉지를 발굴 조사한 결과, 왕릉의 석재는 장대석이나 면석 등이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된 건물지의 담장이나 기단에 활용되었으며, 그 이외 탱석을 비롯한 갑석 등은 후대경작에 의해 교란되어 건물지 상단 층위에 무질서하게 놓여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현재의 왕릉 석재는 원위치가 아니라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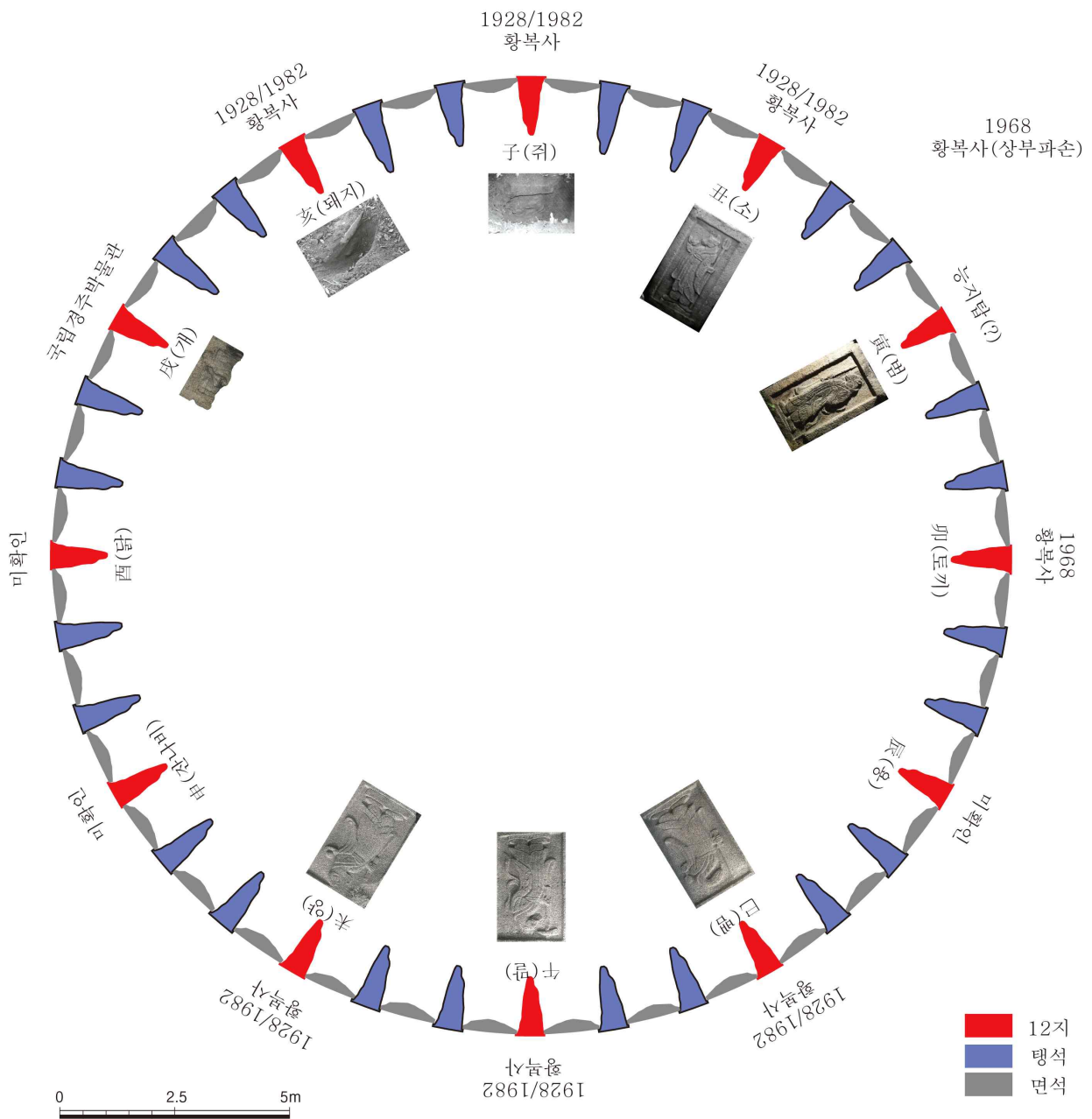
둘째,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왕릉의 석재는 신라 성덕왕(702-737) 이후부터 왕릉에 사용되는 석재와 동일한 형식이며, 크기나 제작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왕릉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일부 석재 중 십이지신상 탱석은 원석에서 십이지신상을 떼어내어 전황복사지의 추정 금당지의 기단과 낭산 서쪽에 위치한 능지탑 탱석에 재사용되었으며, 면석과 지대석 및 갑석은 후대 건물지에 의해 활용되었다. 또한 하대석이나 상대갑석으로 가공되어질 미완성 장대석 석재가 다수 확인되어 완성된 왕릉이 조영되지 않았음을 시사해 준다.

셋째, 발굴지의 서쪽에 주먹크기의 자갈돌과 왕릉 석재를 정밀 가공할 때 박리된 화강암 소편을 깔아 다진 후 그 상단에 점토를 피복하여 도로를 시설한 점으로 보아 이 곳 왕릉 조영지에서 석재를 완성된 형태로 가공하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신라 왕경에서 조사된 도로 유적 중에서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진 도로의 용도는 무겁고 큰 물건을 이동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것은 아마 왕릉에 사용될 미완성 석재를 산지에서 이동하기 위한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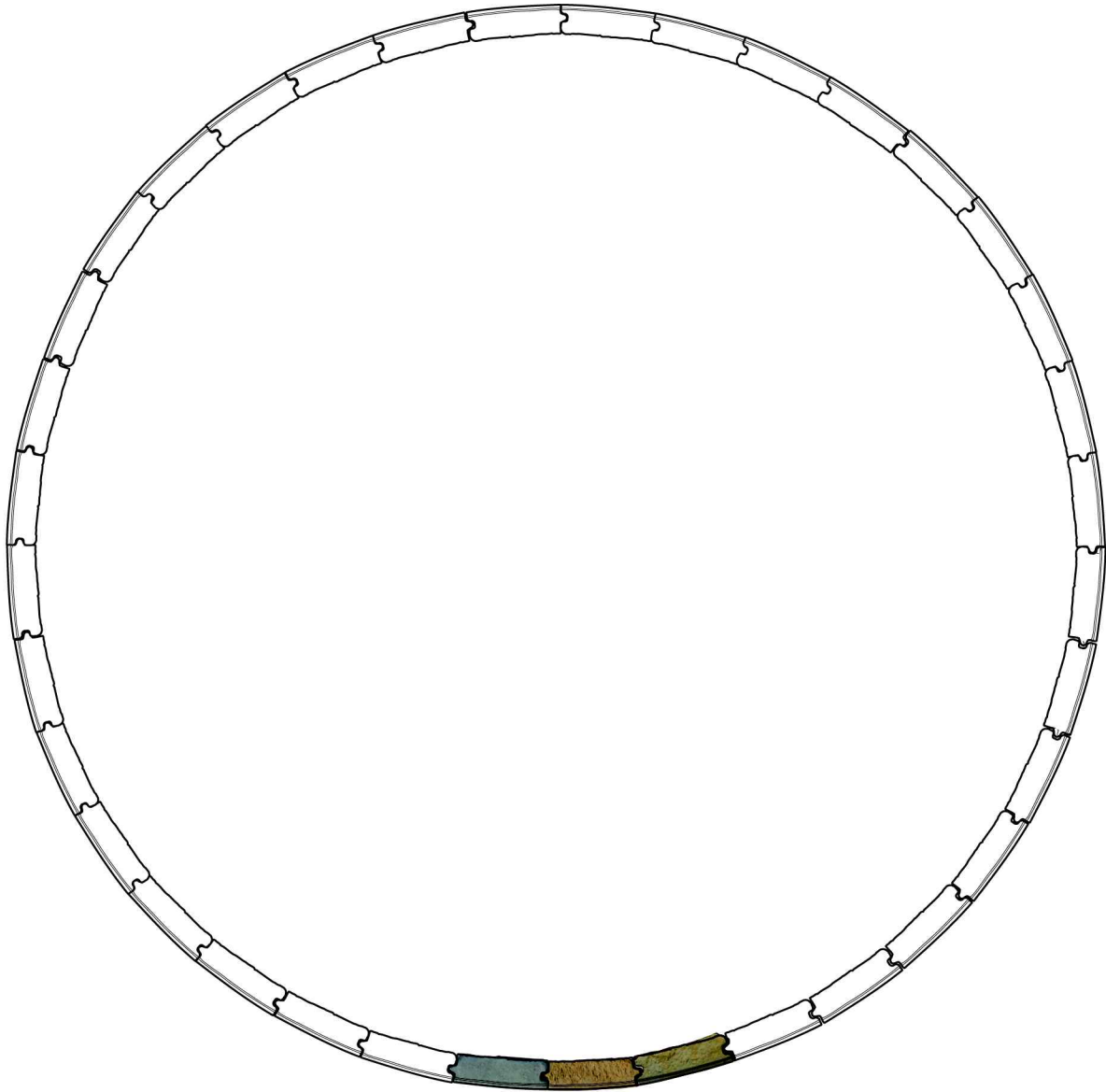
<표 3> 십이지신상 왕릉의 비교

크기(cm)

구분	전황복사 동편왕릉	성덕왕릉 (736)	경덕왕릉 (764)	김유신묘 (673)	원성왕릉 (798)	헌덕왕릉 (825)	흥덕왕릉 (835)	진덕왕릉 (653)
직경	약 22	14.7	20.9	15.8	22.2	25.9	20.7	14.2
둘레	약 69	45.6	65.6	49.7	69.3	82.3	64.6	44.9
탱석·면석	36+36개	30+30개	36+36개	24+24개	36+36개	48+48개	36+36개	24+24개
십이지신상	평복부조	무복환조	무복부조	평복부조	무복부조	평복부조	무복부조	무복부조



삽도 6. 추정 왕릉지 복원 모식도(1968:삼산오약조사단, 1982:동국대 박물관 보고서 참조)



삽도 7. 추정 왕릉지 복원 모식도(호석 전개도 및, 상대감석 결구 상태)

적으로 보인다.

넷째, 왕릉의 후보지를 조사한 결과, 유구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발굴지의 동북쪽 공지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 후대의 교란과 주변의 건물지 유구로 보아 현재로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주변으로 확장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하여 전체적인 층위를 파악한 결과 물질에 의해 조성된 층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발고도 역시 북천(알천)의 하상(54~60m)과 추정 왕릉지(64~66m)는 거의 10m 가까이 고도차이가 있어 완성된 왕릉이 북천의 홍수로 인해 파괴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섯째, 왕릉 조영에 사용된 석부재가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전황복사지 추정 금당지의 면석이나 능지탑의 탕석으로 이용된 것과 현 발굴지의 건물지에 재활용되었다는 것은 당시 신라왕실의 계세관념과 골품체제나 왕실의 권위로 보아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왕릉의 석재는 당시 왕을 위하여 사전에 능침을 조영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다가 어떠한 사유로 중지하고 왕릉을 설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왕릉의 석재중 상대갑석이나 지대석용으로 만들기 위해 원석 상태의 미가공 석재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으며, 또한 석실 내부를 만들기 위한 벽석과 천정석, 연도와 문비석, 관대용 석재 등이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여섯째, 조사된 왕릉 석재를 복원(직경 약 22m, 둘레 69m)하여 기왕의 왕릉의 규모를 통해 비교해 볼 때, 전현덕왕릉 보다는 작고 전경덕왕릉이나 원성왕릉과 비슷하다. 석재의 정밀한 가공 기법과 십이지신상의 일반적인 양식 변화 추이 연구 결과를 보 볼 때, 일반적으로 왕릉 조영의 전개 과정에서 초기 형식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성덕왕릉(737년)부터 완성된 능묘제도의 시작으로 보면, 경덕왕릉(765년)보다는 이른 형식이고 성덕왕릉과 비교하면 후행양식이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발굴 조사된 추정 왕릉지는 모든 발굴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중대의 미완성 왕릉으로 성덕왕의 둘째 아들이자 경덕왕의 형인 효성왕의 가릉(假陵)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효성왕(742년薨)은 그의 유언대로 관을 법류사 남쪽에서 화장하여 동해에 산골하였다는 기록이나 5년간 짧은 재위기간을 고려해 보면 병석에 있을 때 능침을 사전에 준비하다가 왕이 유언으로 화장을 택하자 가릉의 석물은 방치하게 되어 후대 자연스럽게 전황복사지 금당지 면석과 능지탑 탕석, 현재 발굴지의 건물지에 재활용하였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2) 건물지(도면 7, 사진 30~47)

(1) 1호 건물지(사진 30)

조사지역 중앙부 남쪽에서 확인된 정면 4칸, 측면 2칸 건물로 동쪽에는 삼각형 전돌을 사용한 기단석렬이 확인된다. 기단석렬 앞쪽으로는 와무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건물지 남쪽으로는 1호 담장인 동-서 담장·서쪽은 2호 남-북 담장이 연접하여 위치한다. 건물지의 각 적심 간 주칸거리는 270cm이다. 적심은 기반층을 직경 150~190cm로 굴착한 후 크기 30cm

내외의 냇돌을 채워 넣었다. 건물지는 1호 동-서 담장의 배수로를 파괴하고 조성되어 담장보다 후축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지는 북쪽에 연접한 3호 담장에 붙여 적심을 조성한 뒤 덤병 초석을 올렸으며, 기단석인 삼각형 전돌 또한 3호 담장에 붙여 조성하였다. 이 기단석과 3호 담장 남쪽 석렬에 붙여 삼각형 전돌을 2~3단으로 쌓아 올려 렬을 만든 뒤 내부에 방형의 전돌을 채워 보도를 조성하였다. 유물은 와무지와 적심 상부에서 연화보상화문수막새와 포도당초문 암막새 등이 출토되었다.

(2) 2호 건물지(사진 31·32)

조사지역 4호 동-서 담장 북쪽에 연접하여 북쪽 경계까지 이어지는 대형 건물지로 후대 경작과 교란으로 인해 일부 적심이 삭평·유실되어 확인되지 않는다. 건물지의 규모는 측면 2칸으로 정면은 적심이 유실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우나 잔존한 적심의 주칸 거리가 350cm인 것으로 볼 때 7·8칸 정도로 추정된다. 건물지 서쪽은 5호 담장이 남-북으로 이어지며, 남쪽으로는 4호 담장이 동-서로 이어진다. 적심은 직경 110~150cm로 기반층을 굴착 한 뒤 크기 20~30cm 정도의 냇돌을 채워 넣었다. 건물지 북쪽 적심 주변에서 주좌 초석 1점이 확인되는데, 이곳은 최근까지 논둑이 위치하던 곳으로 옆에 위치한 적심에서 이탈되어 논둑 부재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기타 건물지(사진 33·34)

앞서 기술한 2기의 건물지 외에 1호 동-서 담장 동쪽에서 다수의 적심과 배수로 등이 확인되나 조사 경계에 맞물리거나 후대 교란 및 삭평이 심해 건물지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러나 이 일대 모두 소토와 목탄이 다량 노출되는 것으로 볼 때 한차례의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적심 주변으로 와무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남쪽으로 이어지는 기단 석렬과 크기 20~30cm 정도의 냇돌과 활석을 사용한 배수호가 동쪽 경계로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볼 때 이와 관련된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호 담장 남쪽에 위치한 배수로 사이에는 담장에서 이어지는 남-북 보도가 확인되었으며, 보도는 크기 30cm 정도의 비교적 편평한 냇돌을 3줄 정도 넓게 깔아 조성하였다. 주변에서 초화문암막새와 인화문 토기편 등이 확인되고 있어 그 시기를 8세기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이 후 남쪽에 대한 추가 조사가 있을 경우 명확한 성격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1호 담장(사진 35~38)

조사지역 남쪽 경계에 위치하는 동-서 담장으로 조사지역 동쪽 경계부터 서쪽 경계까지 이어지고 있어 경계 외곽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담장은 크기 30~40cm 정도의 냇돌을 사용하여 가로놓혀쌓기와 세로놓혀쌓기를 사용하여 남쪽과 북쪽 2렬을 먼저 쌓은 뒤 내부에 같은 크기의 냇돌을 채워 넣어 조성하는 방식으로 2단 정도 잔존한다. 담장 북쪽에

는 불명석재 2점 및 크기 30~40cm 정도의 냇돌을 이용한 1렬의 석렬을 조성하였다. 담장의 규모는 현길이 5520cm, 너비 135~140cm이며, 주축 방향은 E-4° -S이다. 담장 서쪽 약 00cm 정도에서 정연하지 못한 석렬이 확인되는데 이는 담장보다는 담장 사이 도로로 사용된 곳으로 이곳에서부터 도로가 좁아져 남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담장에는 길이 200cm, 너비 50cm인 배수로를 조성하였으며, 배수로는 담장과 같은 크기의 냇돌을 쌓아 북쪽부에 곡률을 주어 동쪽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배수로 바닥은 별다른 시설 없이 기반층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후축된 1호 건물지에 의해 일부 파괴되었다. 담장 일부는 남-북으로 이어지는 보도가 확인된다. 담장 주변에서 연화보상화문수막새와 석구 및 초화문암막새 및 와무지가 확인되며, 배수로 상부에서는 토수기와와와 외편이 확인된다.

(6) 2호 담장(사진 39)

1호 동-서 담장에 붙여 남-북으로 조성한 담장으로 주축방향은 N-8° -E이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2390cm, 현너비 82cm이다. 담장은 현재 토층조사를 위한 독 아래에서 확인되어 담장의 명확한 너비는 알 수 없으나 노출된 담장의 형태를 보면, 하단은 크기 30~40cm 내외의 냇돌을 가로놓혀쌓기하여 한줄 쌓은 후 2단부터는 들여쌓았다. 내부 채움석은 같은 크기의 냇돌을 중앙 한줄 정도 채워 넣었다. 담장은 4호 담장과 만나는 북쪽 끝 부분에 연결되지 않고 50cm 정도의 폭을 두고 마감 처리 하였다. 담장 북쪽 일부 구간은 왕릉 석재인 면석을 재사용하여 담장석으로 재사용하였다. 담장은 1차 축조 이 후 서쪽 석렬에 붙여 담장을 확장하였으며, 하단석은 크기 20~30cm 정도의 냇돌을 깔아 석렬을 마련하였다. 담장 석렬 일부는 미완성 석재 및 왕릉의 지대석, 갑석 등을 재사용하였다. 이 석렬은 1호 담장의 북쪽에서 이어지는 1줄 석렬과 연결되고 있어 1호 동-서 담장의 북쪽 석렬과 동시기에 확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3호 담장(사진 40~42)

1호 건물지 북쪽에 맞물려 확인된 동-서 담장으로 2호 담장과 폭 약 30cm 정도의 공간을 두고 조성하였으며, 동쪽은 조사지역 동쪽 경계에서 확인된 남-북 석렬까지 연결된다. 담장의 규모는 길이 3750cm, 너비 80cm이며, 주축방향은 E-10° -S로 1호 동-서 담장보다 주축방향이 남쪽으로 6° 정도 더 틀어졌다. 담장의 조성은 먼저 1단은 크기 50cm 이상의 냇돌을 이용하여 남·북 외곽 2렬을 가로놓혀쌓기와 세로놓혀쌓기를 혼용하여 쌓은 뒤 2단 부터는 이 보다 작은 50cm 미만의 냇돌을 들여쌓았다. 남·북 외곽 사이는 크기 30cm 내외의 냇돌을 채워 넣었으며, 북쪽 외곽 앞쪽은 약 50cm 정도의 공간을 둔 후 크기 40cm 내외의 냇돌을 이용하여 한 줄의 석렬을 조성하였다. 담장의 남쪽 면은 1호 건물지 기반석으로 사용한 삼각형 전돌이 담장 40cm 앞쪽에서 꺾여 동쪽으로 길게 이어지다 동쪽 일부에서 반파된 방형 전돌로 연결한 뒤 내부에 방형 또는 반파된 전돌을 깔아 보도로 조성한 것

으로 볼 때 1호 건물지와 동시기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동쪽 담장 석렬 앞쪽으로 와무지가 열을 따라 넓게 형성되었으며, 와무지 내부에서 반파된 귀면와, 연화문 수막새, 쌍조문 암막새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8) 4호 담장(사진 43)

조사 1구역과 2-3구역, 4구역에서 확인된 담장으로 남-북 담장이 길게 이어지다 1구역 일부에서 꺾여 동-서 이어지는 담장으로 북쪽은 조사지역 경계 외곽으로 계속 이어진다. 담장 동쪽 일부는 후대 경작과정에서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담장의 규모는 현길이 3340cm, 너비 120cm로 담장의 남-북 주축방향은 $N-6^{\circ}-E$, 동-서 주축방향은 $E-7^{\circ}-S$ 이다. 담장의 축조는 하단에 크기 20cm 미만의 넷돌을 1~2겹 간 뒤 2단 부터 크기 40cm 내외의 넷돌을 들여쌓기 방식으로 가로놓혀쌓기와 세로놓혀쌓기를 혼용하여 축조하였으며, 3단 또한 들여쌓기하여 같은 방식으로 조성하였다. 담장 동서 외곽 2렬 사이는 크기 30cm 내외의 넷돌을 넣어 축조하였다. 4호 담장은 최근까지 논둑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교란이 심해 동쪽과 담장 상부시설 일부가 무너지거나 유실된 상태였으며 논둑 상부에서 일부 석재가 노출되어 있었다. 담장의 동-서쪽 담장은 남쪽으로 약 20cm 정도의 폭을 두고 왕릉 폐기 후 사용되지 않는 기단석과 미완성 불명석재를 이용하여 한 줄의 석렬을 조성하였다. 3호 담장과 만나는 4호 담장 부분에서 남-북으로 길게 이어지는 배수로가 확인되며, 담장에는 4호 담장과 배수로 사이에 회랑의 초석으로 추정되는 덩벙 초석 1매가 놓여져 있다. 유물은 담장 주변에서 호박씨문인 단판연화문수막새가 출토되었다.

(9) 5호 담장(사진 44)

4호 동-서 담장에 붙여 남-북으로 조성한 담장으로 서쪽에 4호 남-북 담장, 회랑, 배수로가 위치한다. 담장의 규모는 길이 2670cm, 너비 110cm로 주축 방향은 4호 남-북 담장과 같이 $N-6^{\circ}-E$ 이다. 담장의 축조는 하단에 크기 20cm 미만의 넷돌을 간 뒤 2단은 크기 40cm 미만의 넷돌을 가로놓혀쌓기와 세로놓혀쌓기를 혼용하여 들여쌓기 하였다. 후대 삭평으로 인해 상부 시설 대부분이 유실되었으나 3단 일부 석재가 확인되는데 2단과 같은 방식으로 들여쌓기 하였으며, 내부는 동일한 크기의 넷돌을 채워 넣었다. 5호 담장과 서쪽에 맞대어 배수로가 축조되어 있는데, 배수로의 남쪽 내부 폭은 30cm 정도이며, 북쪽에서는 너비 약 80cm 정도로 넓어지는 형태를 보이는데 원래 배수로는 폭 80cm 정도로 일정하였으나 이후 남쪽 배수로 양 옆 앞에 각 1줄의 넷돌을 깔아 수로의 폭을 축소하였다. 배수로의 축조는 크기 40cm 내외의 넷돌을 가로놓혀쌓기와 세로놓혀쌓기를 혼용하여 2렬로 조성하였으며, 석렬 뒷채움은 같은 넷돌을 일렬로 채워 넣었다. 배수로 내부에서 토수기와와 암키와 등 다수의 기와가 배수로 내부로 함몰된 상태로 노출되었다. 담장과 배수로 사이, 배수로 내부에서 연화보상화문 수막새와 연화문 수막새, 암키와와 수키와, 등잔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10) 회랑지(사진 45~47)

4호 남-북 담장과 5호 담장 서편에 위치한 배수로 사이에 위치하는 단랑의 회랑 건물지이다. 회랑의 서쪽은 4호 담장을 이용하여 초석을 두었고 동쪽은 배수로를 따라 초석과 적심이 확인된다. 담장은 후대 경작으로 인해 상부와 동쪽 석렬이 유실되어 담장이나 초석, 적심 등 일부만이 확인된다.

잔존한 회랑의 형태를 살펴보면 하단에 크기 30cm 내외의 할석을 사용하여 적심을 조성한 뒤 그 상부에 크기 약 50cm 정도인 덩벙 초석을 놓았다. 각 초석 간 주칸 거리는 310cm이며, 북쪽부에 적심이 확인되고 있어 북쪽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 길이는 3120cm이다. 회랑 초석과 배수로 내부에서 다량의 와편 및 기와가 노출되고 있어 회랑 건물에 쓰였던 기와가 건물지 도괴과정에서 흩어진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초석 주변 와무지에서 ‘窰府井井’ 명 와편 1점과 수키와, 암키와, 연화문수막새 등을 수습하였다.

(11) 기타 서편 건물지와 6호 담장(사진 48~50)

도로유구 서쪽에 맞물려 확인되는 건물지 및 담장으로 위치로 볼 때 황복사지 동쪽 사역 담장과 외곽 건물지로 추정된다. 조사지역 남서쪽 석렬은 도로유구 외곽에 붙여 조성되었으며 석재 가공 당시 나온 화강암편과 할석을 사용하여 2단으로 축조하였다. 남쪽 석렬이 서쪽 배수로로 인해 확인되지 않으나 1호 담장에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석렬 뒤쪽으로 직경 110cm 정도의 적심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건물지가 서쪽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추정되나 일부만 확인되어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다. 또한 적심 사이에 크기 30cm 정도의 넷돌을 사용한 석렬이 확인되나 이 또한 전체적인 규모를 알 수 없어 서쪽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명확한 성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호 담장은 조사지역 북서쪽에서 확인된 담장으로 크기 30cm 정도의 넷돌을 사용하여 조성하였으며, 담장 상부에는 기단석으로 추정되는 화강암이 놓여 있으나 경계에 맞물려 있어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다. 6호 담장 동쪽 경계까지 자갈이 깔린 것으로 볼 때 담장 동쪽까지 도로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12) 건물지 검토

일반적으로 건물지는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구조와 유물이 출토된다. 그러나 이번에 조사된 건물지의 특징이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첫째, 현재 완전히 발굴된 상태가 아니라 전모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건물지 내부 혹은 외곽에 신라 왕경내 조사된 다른 도로 보다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잘 만들어진 도로가 서편에 가설되어 있다.

둘째, 통일기 건물지가 지니는 일반적인 구조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출토 유물이 기와가 대부분이며, 일부 구역에 담장 가장자리를 따라 무문의 삼각형 전돌이 깔려 있다. 특히

불교와 관련된 유물이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아 이와 관련된 유구로 보기 어렵고 또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거주 하였다면 흔적과 당시에 사용되었던 생활용품인 토기류와 금속용기류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량의 토기만 출토되어 특수한 건물로 판단된다..

셋째, 건물지는 구획된 담장을 따라서 일부에 확인되며 덩벙 초석을 놓아 만든 회랑을 길게 만들었거나 2칸×9칸(?) 등 규모가 큰 건물이 건축되었다. 또한 담장은 왕릉의 장대석 석재를 활용 하여 보강한 것으로 보아 왕릉보다 후대에 건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건물지의 용도는 일반적으로 왕경에서 확인되는 주택이나 불교 사원 건축과 차이가 있어 관청이나 특수한 건물의 용도로 사용되었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월성과 안압지에서만 출토되었던 ‘翳部井井’, ‘翳府井井’ 기와가 단일 유적으로 다량으로 출토된 사실은 이 유적이 『삼국사기』 잡지 제7 관직상에 보이는 6부 소감전의 습비부(翳比部)나 습비부와 관련된 건물이었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삼국사기』 잡지 제1 제사조에 3산 5악 이하 명산 대천에 지내는 제사는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로 구분하고, 큰 제사는 삼산에서 지내며, 첫째, 나력산(奈歷山)의 습비부(翳比部), 둘째, 골화산(骨火山)의 절야화군(切也火郡), 셋째, 혈례산(穴禮山)의 대성군(大城郡)에서 지낸다고 하였다. 여기서 습비부에 있는 나력산은 신라의 중악 진산인 낭산을 지칭한다는 『경상도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학계의 견해를 참고해 볼 때, 이와 관련성을 추론해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발굴지의 동편 기와 무지의 평기와에 있는 ‘정(?)원사’ (鄭元寺)명 기와는 차륜형 문양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 말기에서 고려초기로 편년되는 것으로 후대에 불교 사원과 연관성을 시사해 준다.

3) 도로 유구(도면 7, 사진 51~55)

(1) 도로(사진 51~55)

조사지역 서쪽에서 확인된 남-북 도로이다. 도로는 황복사지 사역으로 추정되는 서쪽 6호 남-북 담장과 동쪽 4호 남-북 담장 사이에 위치한다. 도로의 규모는 잔존 길이 58m, 추정너비 약 18m로 조사지역 북쪽 경계 외곽으로 계속 이어진다. 도로의 서쪽 경계는 크기 50cm 이상의 활석(화강암편)과 넷돌을 가로놓혀쌓기와 세로놓혀쌓기를 혼용하여 도로 경계를 만들고 그 안쪽으로 크기 2~15cm 내외의 자갈과 사질토를 깔아 도로로 사용하였다. 도로 자갈 윗층은 왕릉 부재 가공에서 나온 화강암 박편들을 넓게 깔 뒤 황갈색사질점토와 자갈을 한차례 더 깔았다. 4호 담장과 연결되는 도로면은 다량의 기와편들을 깔아 도로로 사용하였으며, 내부 기와들에서 ‘翳府井井’, ‘翳部井井’ 명 기와가 다량 출토되고 있어 습비부와 관련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¹²⁾ 도로 서쪽에서는 다수의 수레바퀴흔이 확인되었으며, 수레

12) ‘翳部井井’, ‘翳府井井’ 명문은 월성과 안압지에서 확인된 4가지 타날문 형태로 확인된다. 본 유적에서 확인된 명문 또한 4가지 유형이 모두 확인된다.

바퀴흔은 1호 담장 사이 석렬이 정연하지 않는 부분으로 이어져 있어 이곳에서 도로가 좁아져 남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확인된 수레바퀴흔의 폭으로 추정할 때 수레의 폭은 180cm 정도이다.

본 유적에서 확인된 도로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성림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왕경유적 남-북 도로와 동-서 도로가 16~17m 정도로 대로(大路)인 점으로 볼 때, 본 유적은 왕경유적에서 확인된 방리구획에 의한 도로가 본 지역까지 이어지는 것이거나 전황복사지 사역 혹은 왕릉 조영과 관련하여 특수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IV. 조사결과

경주 낭산 동쪽일원 내 추정 고분지 정비 유적에서 확인된 유구는 추정 왕릉지와 관련된 석재군 및 건물지, 담장, 배수로, 회랑, 도로 등이며, 유물은 막새, 기와, 전돌, 등잔 등 약 300여점이 출토되었다.

첫째, 추정 왕릉지를 조사한 결과, 왕릉의 석재는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건물지의 담장이나 기단에 활용되거나 후대 경작으로 교란되어 현재의 왕릉 석재는 원위치가 아니다. 그러나 왕릉의 석재는 신라 성덕왕릉(737년)부터 사용된 부재와 동일하며, 특히 탕석의 십이지신상은 전황복사지의 추정 금당지의 기단과 낭산 서쪽에 위치한 능지탑 탕석에 재사용되었으며, 면석과 지대석 및 갑석은 후대 건물지에 의해 활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신라왕실의 계승관념과 골품체제나 왕실의 권위로 보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왕릉의 석재는 당시 왕을 위하여 사전에 능침을 조영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다가 어떠한 사유로 중지하고 왕릉을 설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하대석이나 상대갑석으로 가공되어질 미완성 장대석 석재가 다수 확인되어 이를 시사해 준다.

둘째, 왕릉의 후보지를 조사한 결과, 유구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발굴지의 북동쪽 공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층위와 해발고도를 감안하면 완성된 왕릉이 북천의 홍수로 인해 파괴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셋째, 조사된 왕릉 석재를 복원(직경 약 22m, 둘레 69m)하여 기왕의 왕릉의 규모를 통해 비교해 볼 때, 전경덕왕릉(765년)과 비슷하다. 십이지신상의 양식 변화 추이 연구 결과를 볼 때, 일반적으로 왕릉 조영의 전개 과정에서 초기 형식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덕왕릉(737년)부터 석물이 구비된 완성된 능묘제도의 시작으로 보면, 경덕왕릉보다는 이른 형식이고 성덕왕릉과 비교하면 늦은 형식이다.

넷째, 추정 왕릉지는 미완성으로 성덕왕의 둘째 아들이자 경덕왕의 형인 효성왕(孝成王, 742년薨)의 가릉(假陵)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효성왕은 그의 유언대로 관을 법류사 남쪽에서 화장하여 동해에 산골하였다는 기록과 5년간 짧은 재위기간을 고려해 보면 병석(?)에 있을 때 능침을 사전에 준비하다가 왕이 유언으로 화장을 택하자 가릉

의 석물은 방치하게 되어 후대 자연스럽게 전황복사지 금당지 면석과 능지탑 탕석, 현재 발굴지의 건물지에 재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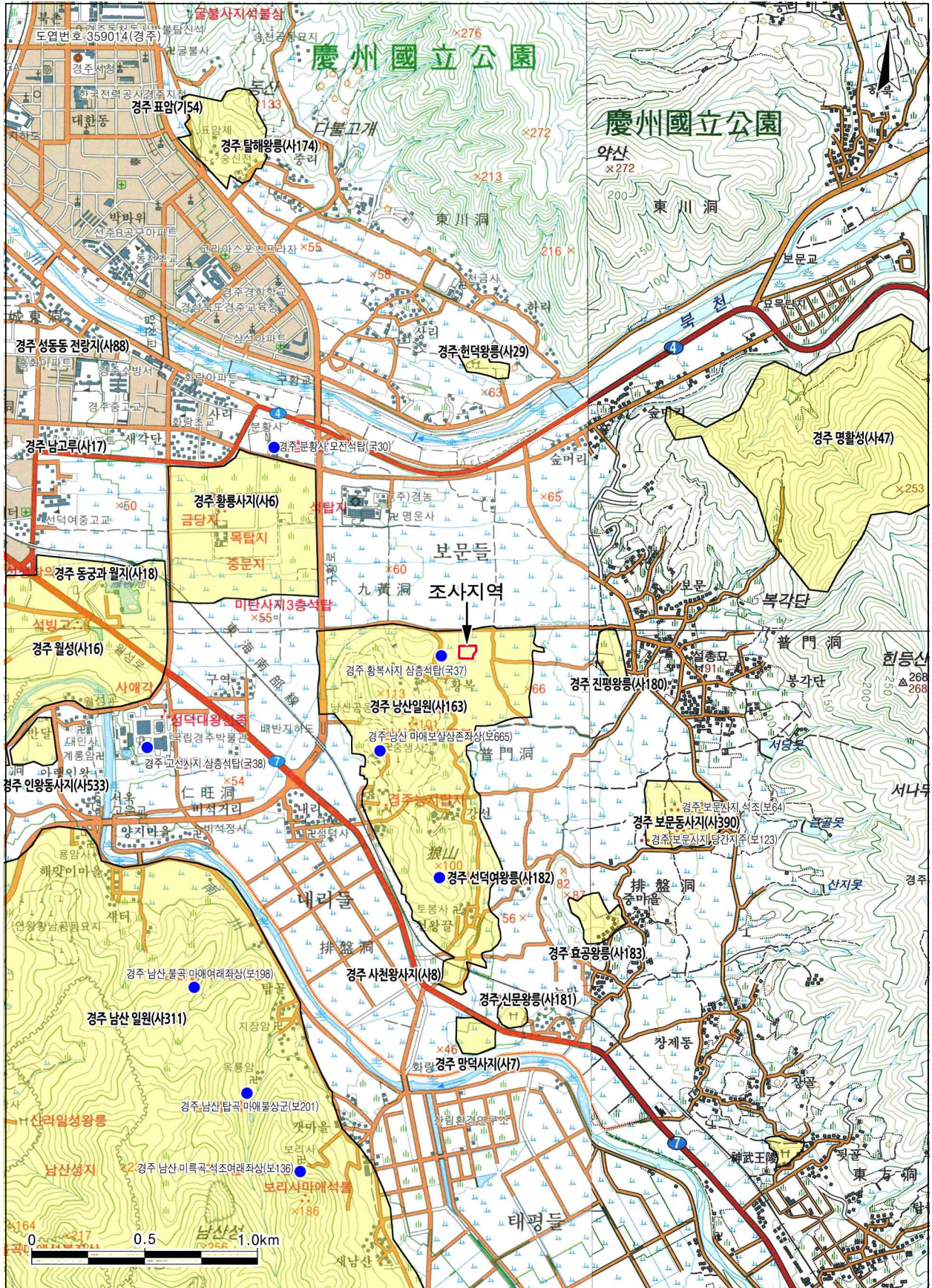
다섯째, 출토된 유물은 기와가 대부분이며, 특히 불교와 관련된 유물이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으며, 또한 일반 생활용품인 토기류와 금속용기류가 없고 다만 소량의 토기만 출토된 것으로 보아 특수한 용도의 건물로 추정된다. 건물지와 담장은 왕릉의 장대석 석재를 활용하여 보강한 것으로 보아 왕릉보다 후대에 건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건물지의 용도는 일반적으로 왕경에서 확인되는 주택이나 불교 사원 건축과 차이가 있어 관청이나 특수한 건물의 용도로 사용되었는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된 유물 중 ‘習部井井’, ‘習府井井’ 기와가 단일 유적에서 다량으로 출토된 사실은 이 유적이 『삼국사기』 잡지 제7 관직상에 보이는 6부 소감전의 습비부(習比部)와 관련된 관청이었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삼국사기』 잡지 제1 제사조에 큰 제사는 삼산 중에서 나력산(奈歷山)의 습비부(習比部)에서 지낸다고 하였다. 여기서 습비부에 있는 나력산은 신라의 중약 진산인 낭산을 지칭하므로 이와 관련성을 추론해 볼 수도 있다.

여섯째, 도로유구는 신라 왕경내 조사된 다른 도로 보다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잘 만들어진 것으로 왕경의 남북대로와 동서대로의 폭이 약 16~17m 정도인 점으로 볼 때, 본 유적의 도로가 왕경의 방리구획에 의해 연결되거나 전황복사지 사역 혹은 왕릉 조영과 관련하여 대형의 미완성 석재를 이동하기 위한 특수 목적으로 가설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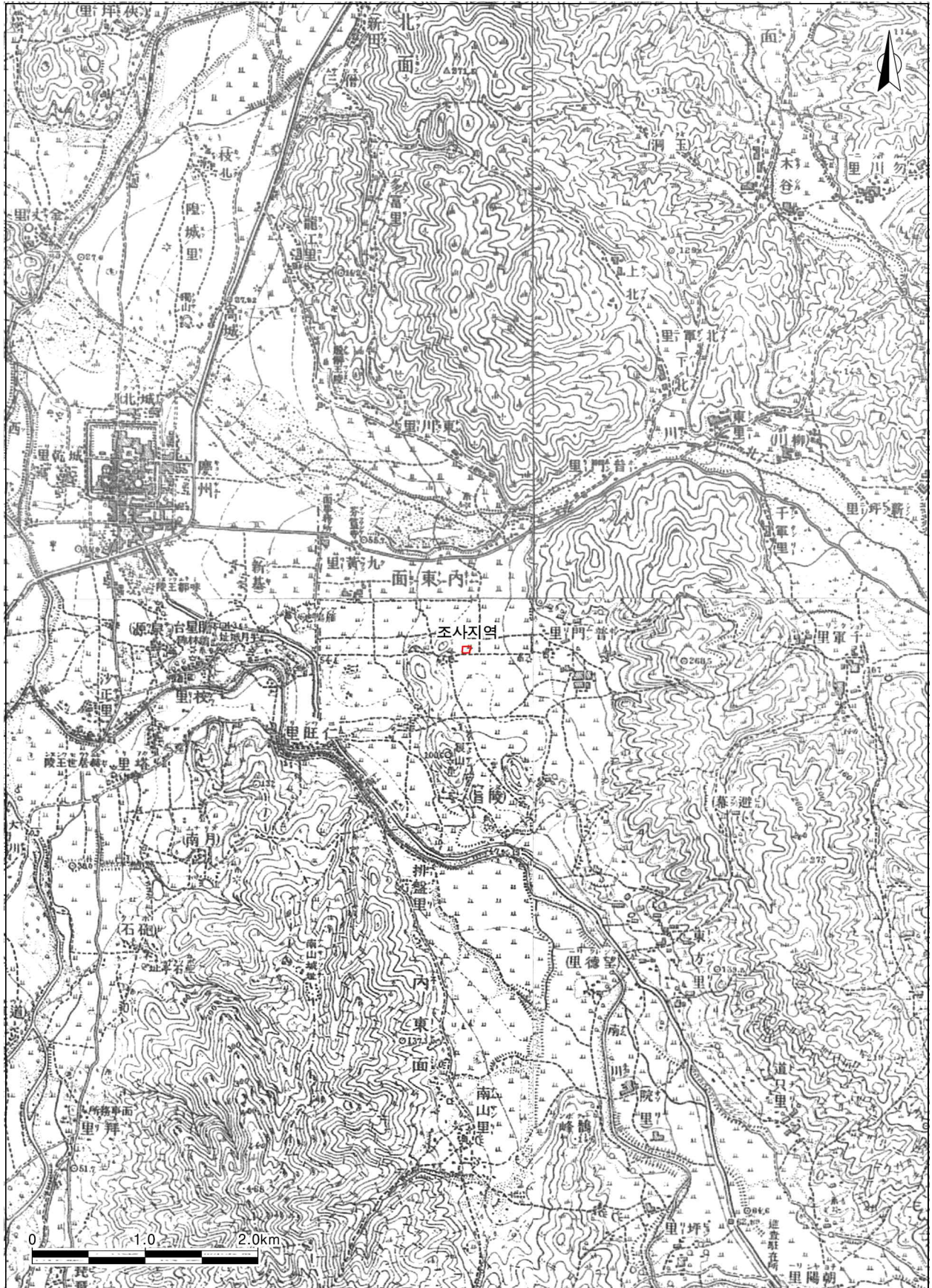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 유적의 존속연대는 출토된 토기류는 통일기양식으로 대부분 8~9세기 퇴화된 형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기와는 비록 소수이나 동궁 창건기(679년)막새가 있으나 대부분 연화문이나 호박씨 연화문 등 늦은 형식으로 보아 8~9세기대가 중심 연대라 볼 수 있다. 유적의 동편 기와 무지의 평기와에 있는 ‘정(?)원사’ (鄭(정)元寺)명 기와는 차륜형 문양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 말기에서 고려초기로 편년되는 것으로 후대에도 사원으로 사용되었음 시사해 준다.

V. 붙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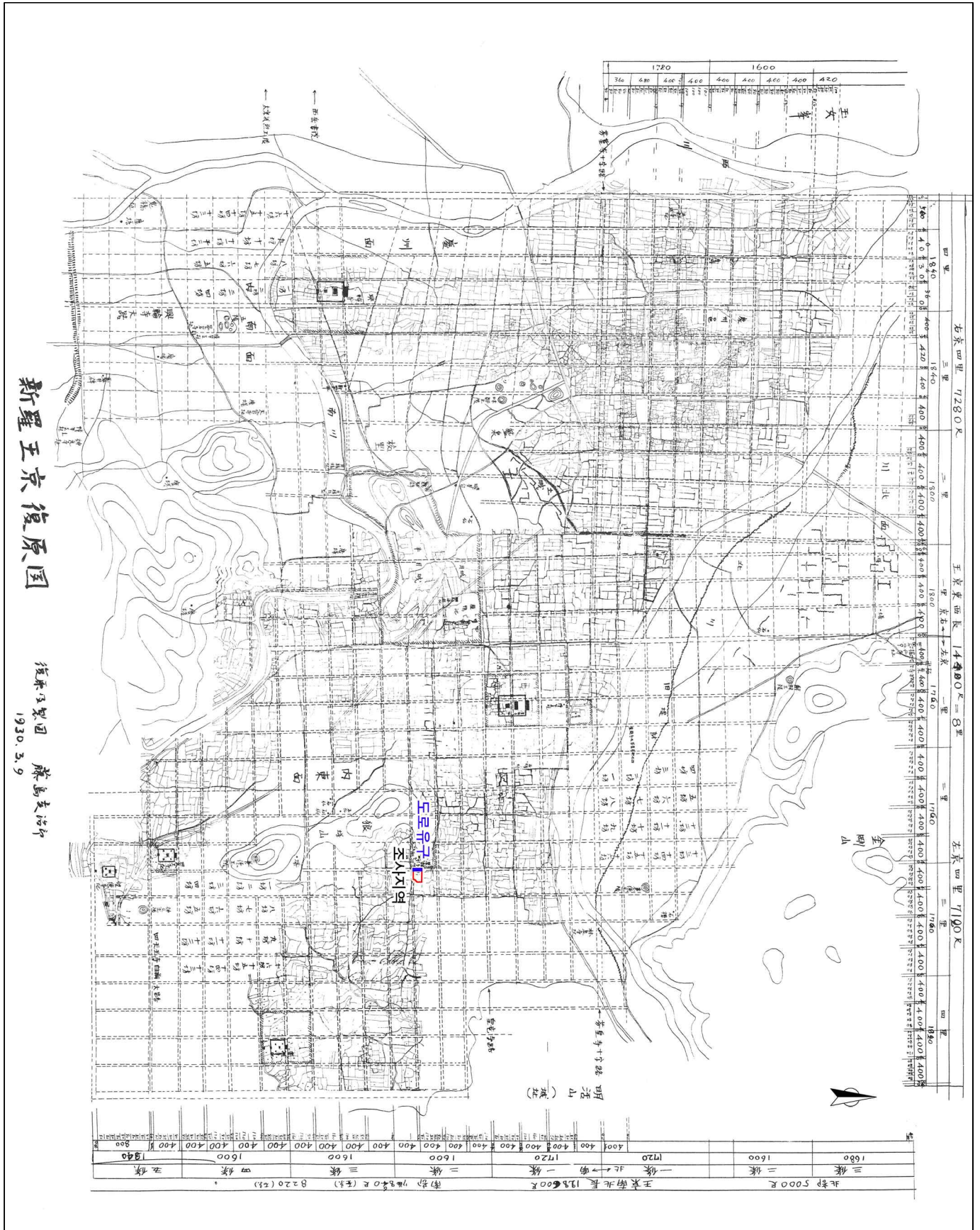
-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 조사지역 근세지도(1/50,000)
- 신라왕경복원도(1930년, 藤島亥治郎)
- 조사지역 지형도(1/5,000)
- 구황동 96번지 일원 지적원도(1913년 측량)
- 1982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지표조사 석재 위치도
- 조사지역 유구분포도 (1/500)
- 조사지역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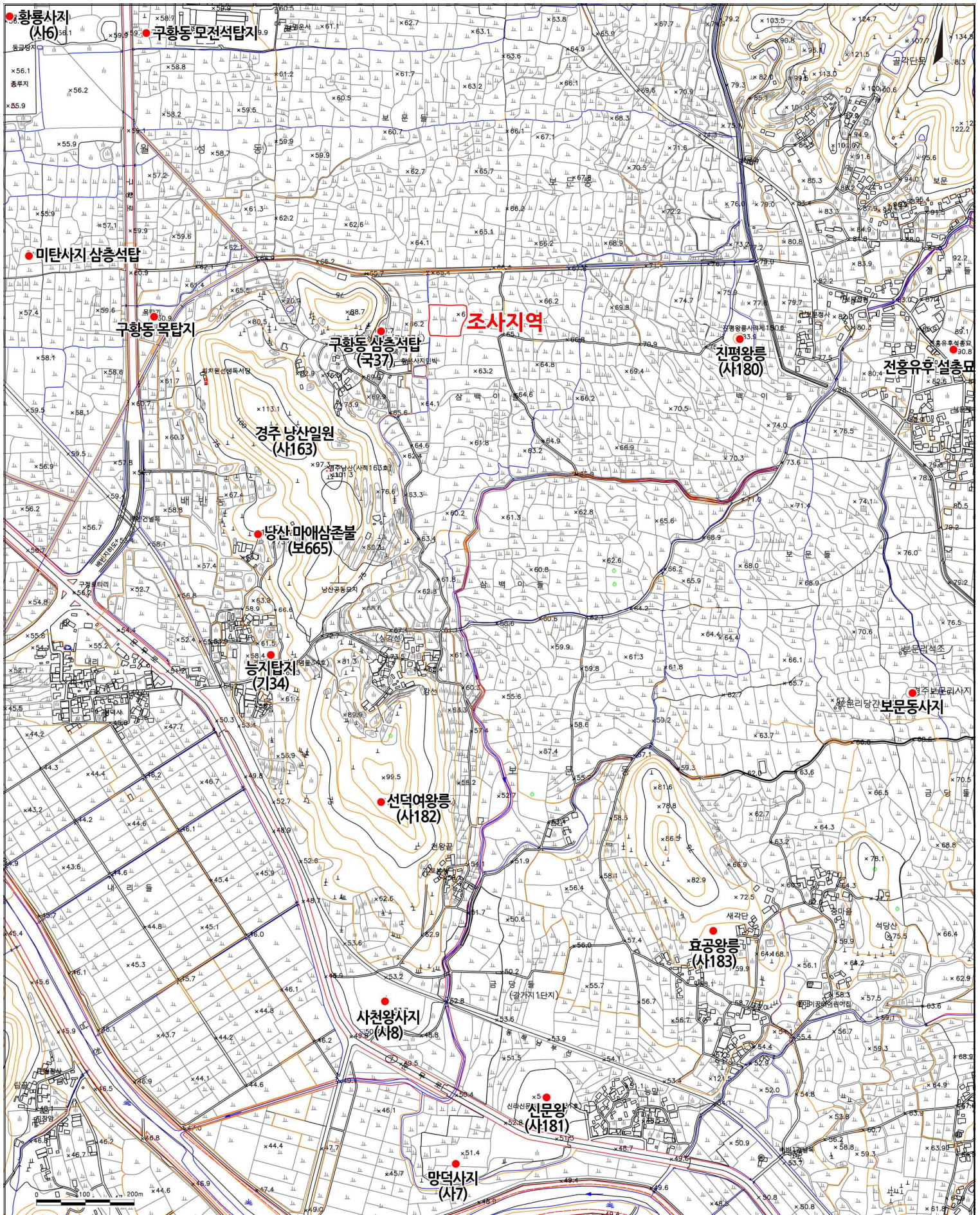
도면 1.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 (1/25,000)



도면 2. 조사지역 근세지도(1/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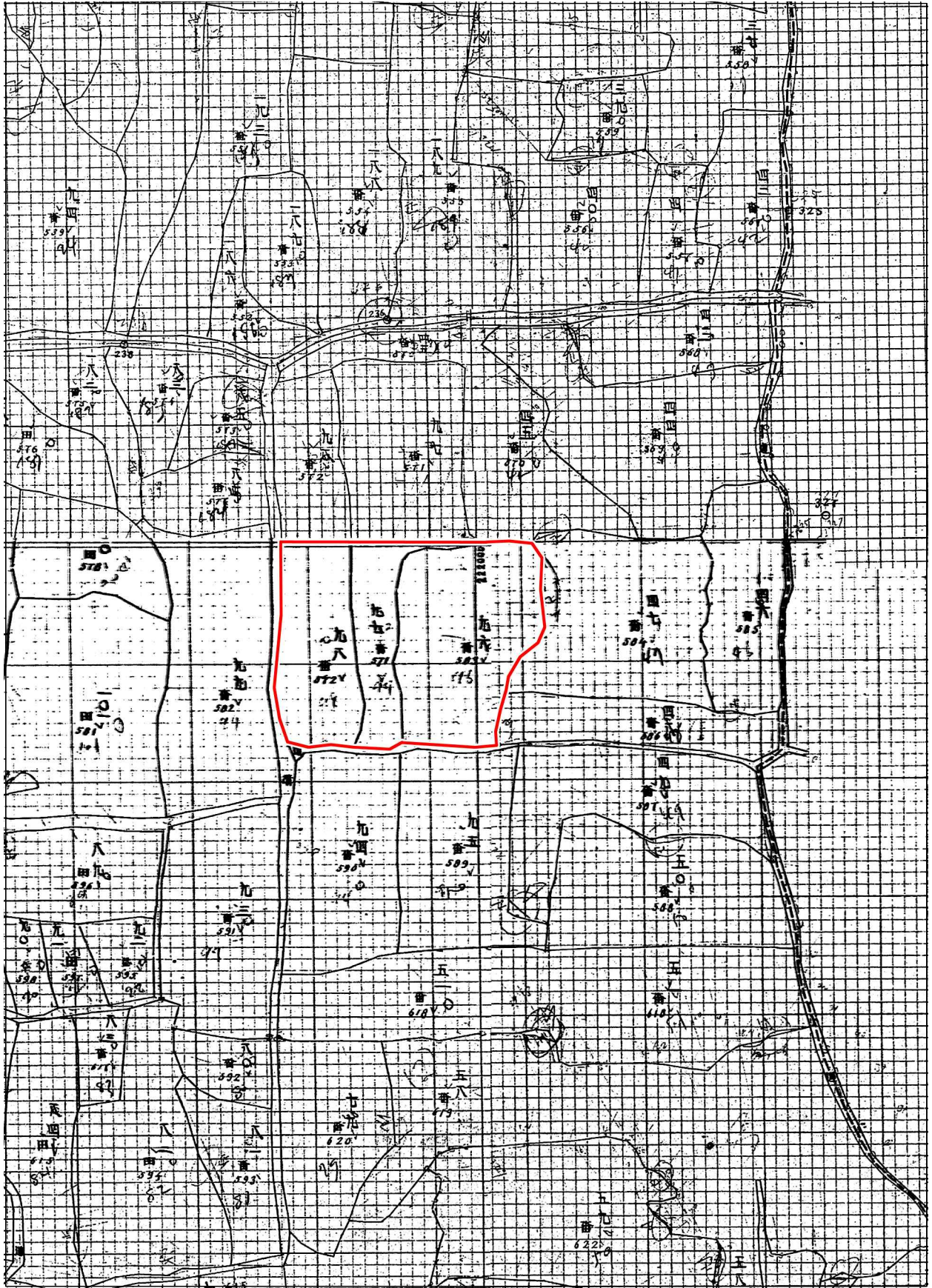


도면 3. 신라왕경복원도(1930년, 藤島亥治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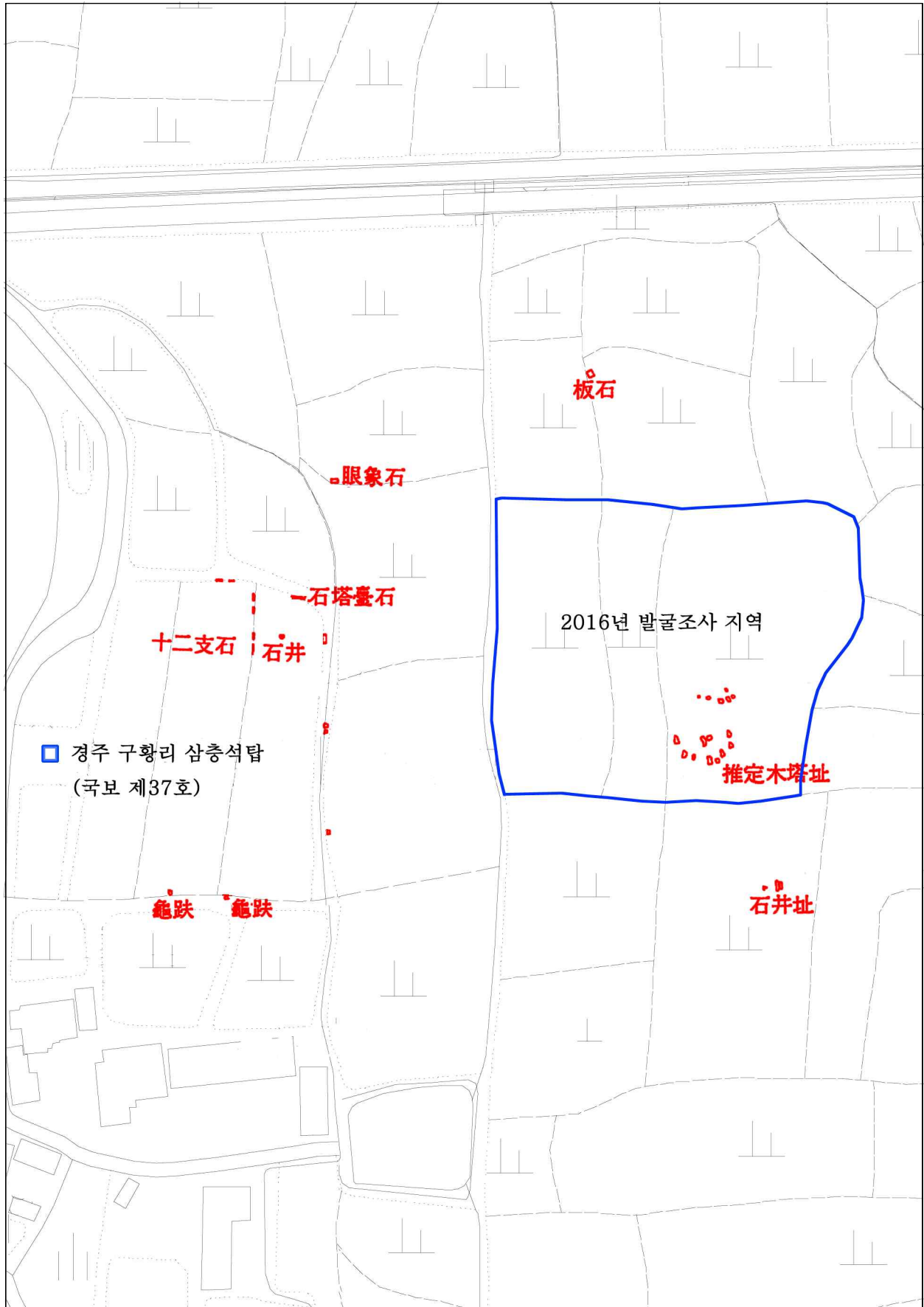


도면 4. 조사지역 지형도 (1/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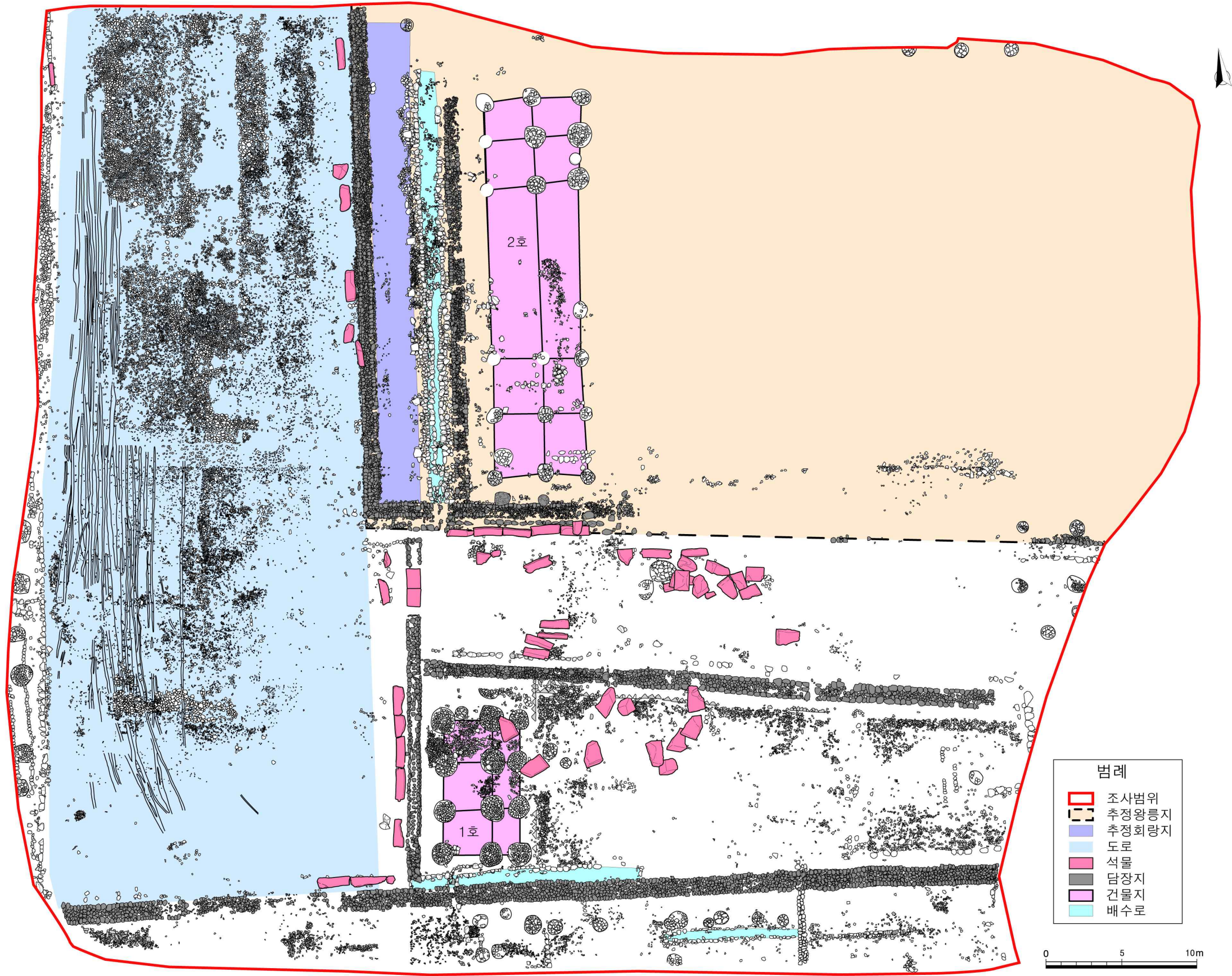
(재)성림문화재연구원



도면 5. 구황동 96번지 일원 지적원도(1913년 6월 측량)



도면 6. 1982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지표조사 석재 위치도



도면 7. 유구분포도(S=1/250)



사진 1. 조사지역 위성사진(출처: Daum 스카이뷰)



사진 2. 조사지역 원경 (남에서)



사진 3. 조사지역 원경 (동에서)



사진 4. 조사지역 조사 후 전경



사진 5. 시굴조사 후 전경



사진 6. 시굴조사 Tr.8a 조사 후 전경



사진 7. 시굴조사 Tr.8a 내 면석 세부



사진 8. 시굴조사 Tr.8a 내 담장 세부



사진 9. 시굴조사 Tr.9a 조사 후 전경



사진 10. 시굴조사 Tr.9a 내 갑석 세부



사진 11. 시굴조사 Tr.9a 내 지대석 세부



사진 12. 시굴조사 Tr.11c 조사 후 전경



사진 13. 시굴조사 Tr.11c 내 탕석 세부



사진 14. 시굴조사 Tr.11c 내 유물 노출상태



사진 15. 발굴 조사 중 전경



사진 16. 조사지역 1구역 전경

(재)성림문화재연구원



사진 17. 조사지역 2-1구역 전경



사진 18. 조사지역 2-2구역 전경



사진 19. 조사지역 2-3구역 전경



사진 20. 조사지역 2-4구역 전경



사진 21. 조사지역 3구역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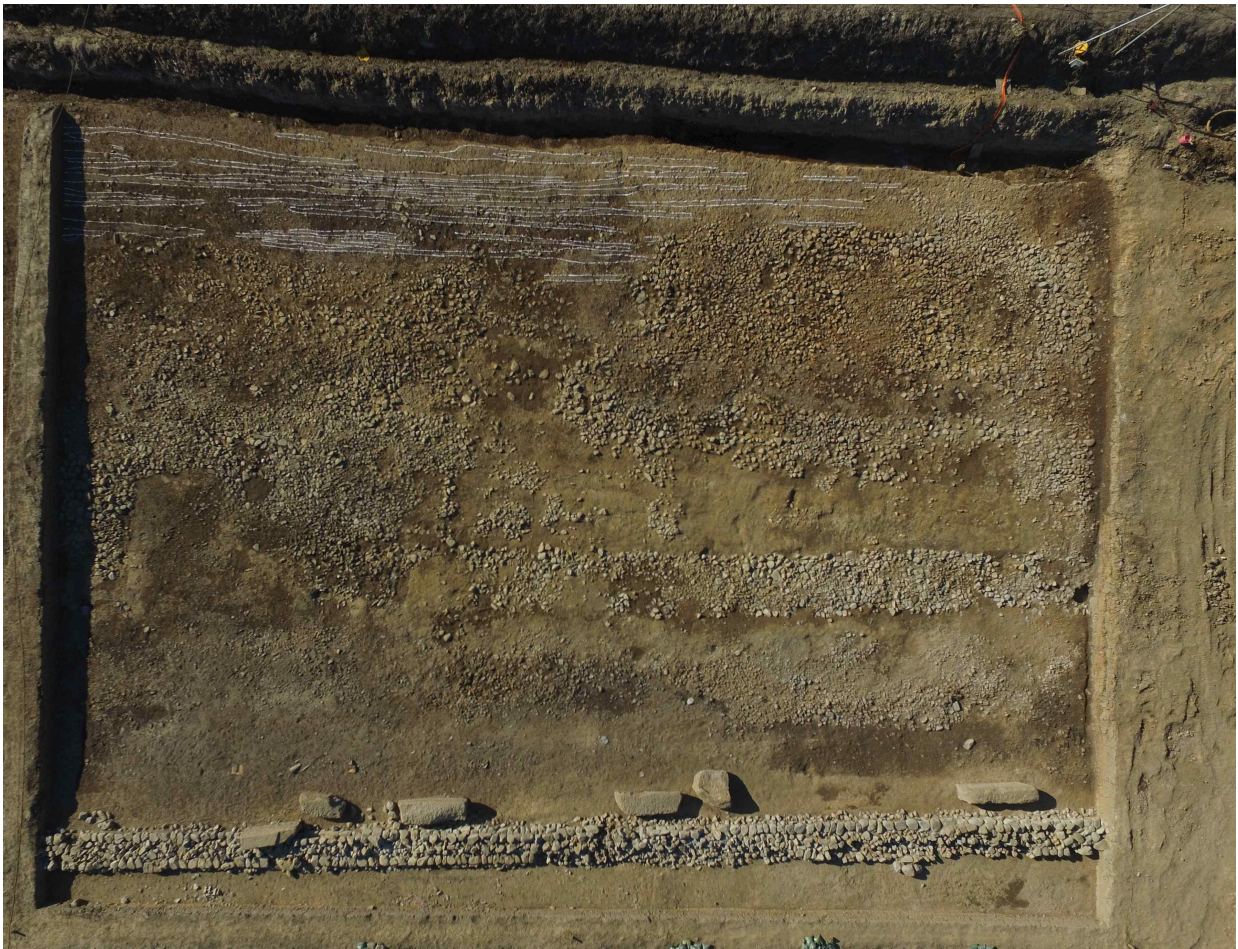


사진 22. 조사지역 4구역 전경



사진 23. 조사지역 5구역 전경



사진 24. 조사지역 6구역 및 추정 왕릉지 전경



사진 25. 왕릉 부채 전경(2-1·2·3·4 구역)



사진 26. 면석 세부



사진 27. 탕석 세부



사진 28. 갑석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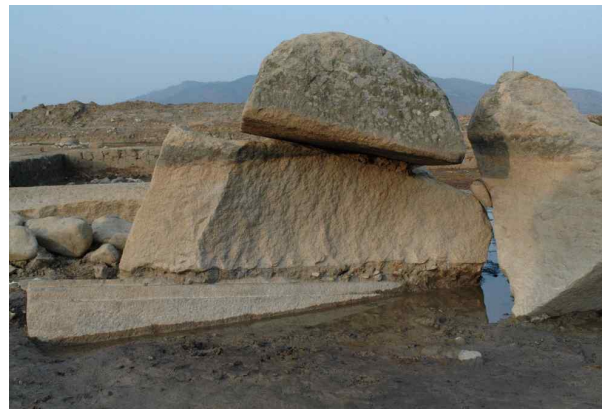


사진 29. 지대석 세부



사진 30. 1호 건물지 전경



사진 31. 2호 건물지 전경



사진 32. 2호 건물지 북쪽 적심 세부



사진 33. 남쪽 적심 건물지 전경



사진 34. 남쪽 건물지 및 배수로 전경



사진 35. 1호 담장 전경



사진 36. 1호 담장 남쪽 유물 노출상태



사진 37. 1호 담장 세부



사진 38. 1호 담장 보도 세부



사진 39. 2호 담장 전경



사진 40. 3호 담장 전경



사진 41. 3호 담장 남쪽 전돌 석렬 세부



사진 42. 3호 담장 남쪽 와무지 노출상태



사진 43. 4호 담장 전경



사진 44. 5호 담장 및 배수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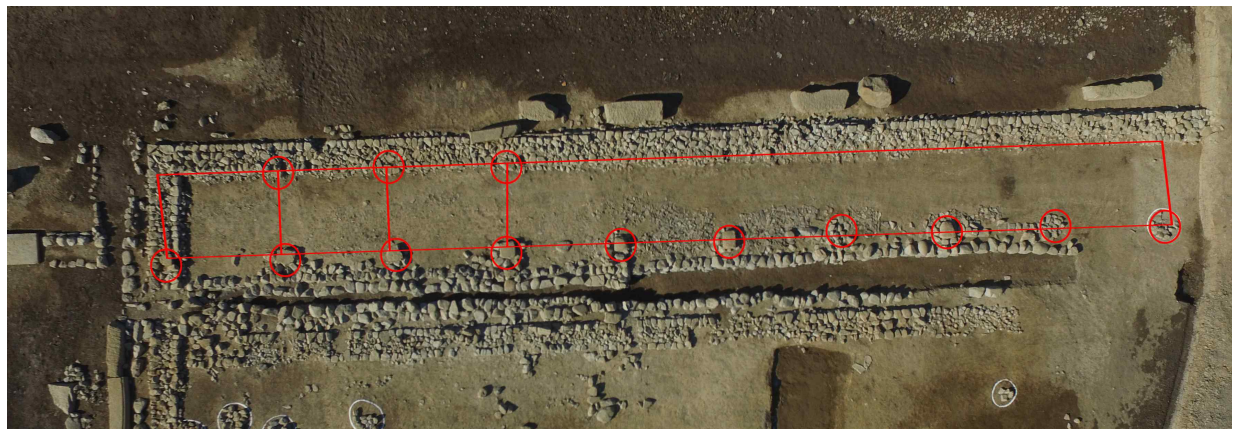


사진 45. 회랑지 전경



사진 46. 추정 회랑 세부
(재)성림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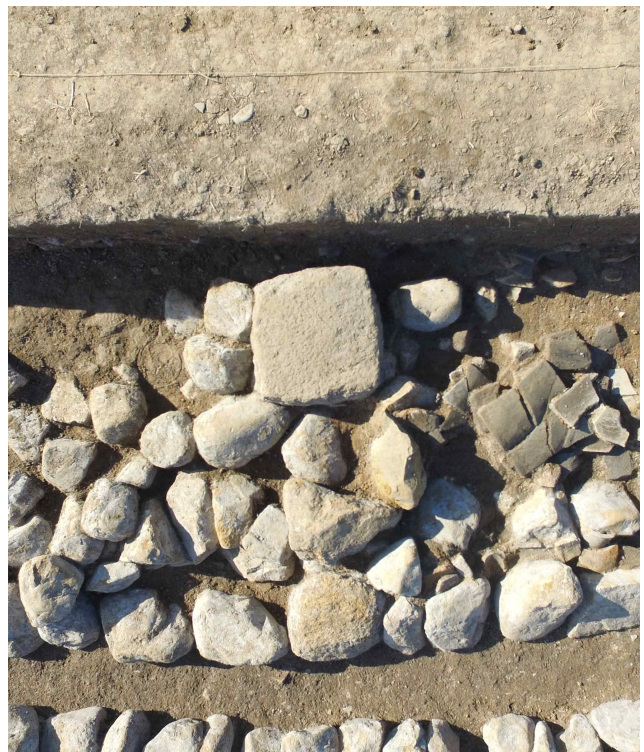


사진 47. 추정 회랑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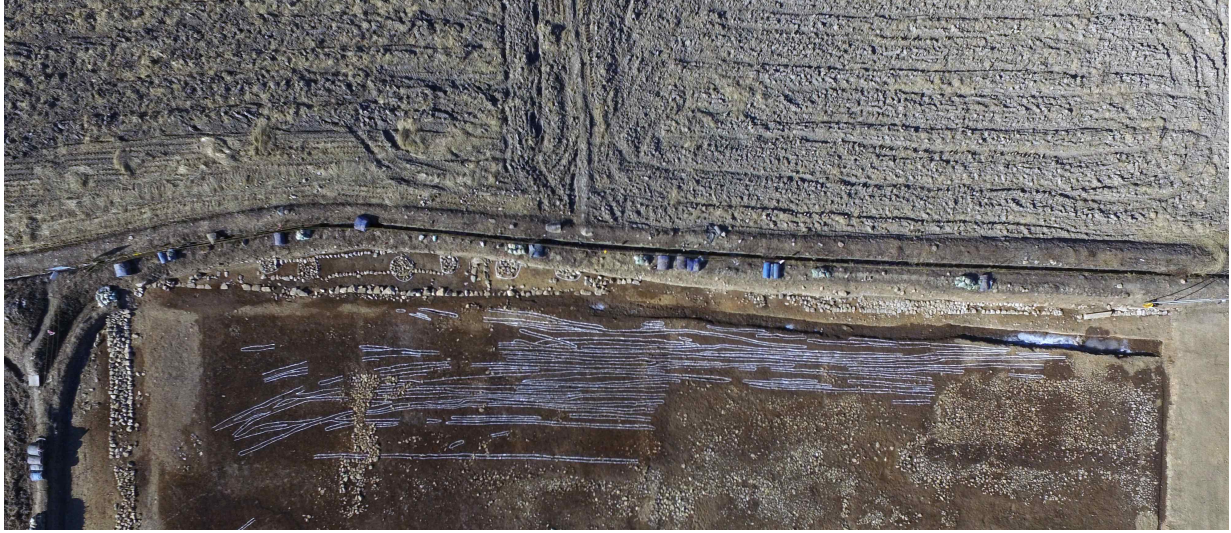


사진 48. 조사지역 서쪽 건물지 및 6호 담장 전경



사진 49. 조사지역 서쪽 경계 건물지 전경



사진 50. 조사지역 서쪽 경계 6호 담장 전경



사진 51. 도로유구 전경



사진 52. 도로유구 내 수레바퀴흔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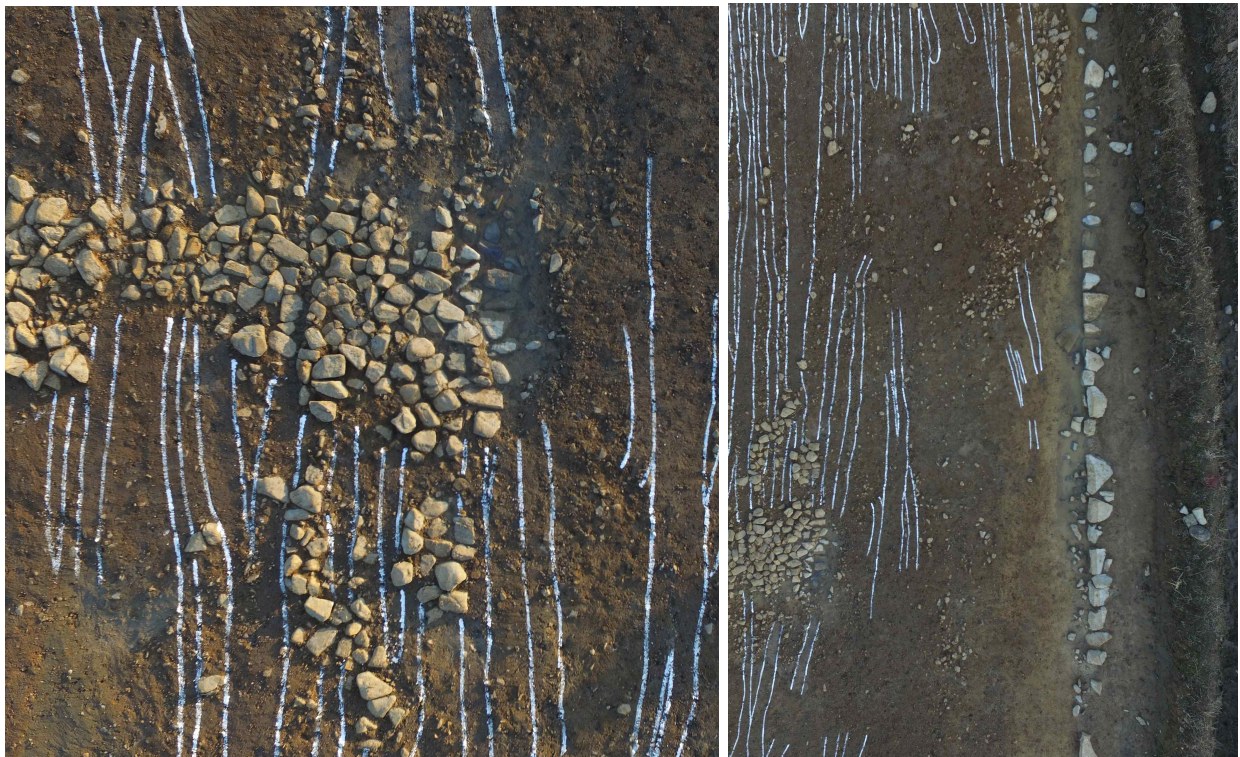


사진 53. 도로유구(수레바퀴흔) 세부

사진 54. 도로유구 경계석렬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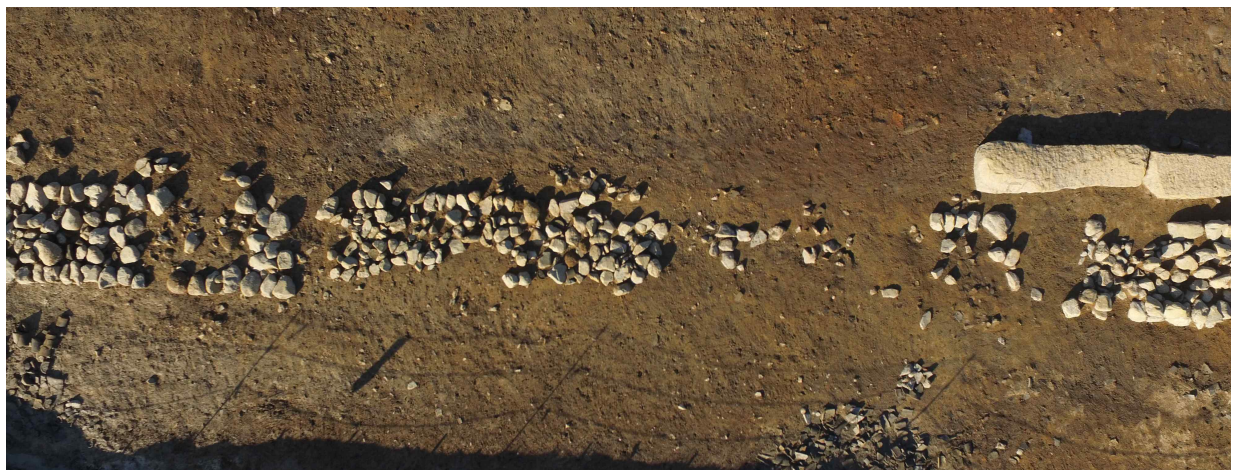


사진 55. 1호 담장 내 도로 통로부 전경



사진 56. 조사지역 출토 수막새 일괄



사진 57. 조사지역 출토 암막새 일괄



사진 58. 조사지역 출토 ‘習府(部)井井’ 명 일괄



사진 59. 조사지역 평기와 및 귀면와, 특수와, 치미 일괄



**경주 낭산 일원 내 추정 고분지 정비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가 검토회의 자료**

발행일 : 2017년 2월 9일

발 행 : (財)聖林文化財研究院

